정답과 해설

중등 국어

1-1

1. 마음을 움직이는 글

(1) 비유 표현

내공 쌓기

11쪽 | 01 ② 02 ③ 03 유성 04 ③

01 이 시는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들을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즉 말하는 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③ 이 시를 읽으면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의 풍경과 그 사이로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④ 이 시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밤하늘과 유성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시는 유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유성은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나 지구 쪽으로 빛을 내며 떨어지는 물체이다.

02 비유는 서로 다른 두 사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표현 방법이다. 비유를 사용하면 익숙한 대상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대상을 인상 깊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주어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적절한 비유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더 깊게 이해하게 하므로, 시인의 의도를 모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03 서술형 이 시는 별들 사이로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빗나간 야구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유성'과 '빗나간 야구공'은 둘 다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04 ㉠은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이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인 의인법이 쓰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풍유법, ② 대유법, ④ 직유법, ⑤ 은유법에 대한 설명이다.

족집게 예상 문제

본문 12~15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① 05 ② 06 ③
07 고양이, 봄, 봄 08 ⑤ 09 ② 10 ③ 11 ④
12 ③ 13 ⑤ 14 ④ 15 ⑤ 16 ④ 17 부드럽다. 곱다. 향기롭다. 생명력이 넘친다. 고요하다. 포근하다. 생기가 느껴진다. 18 ④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9 빗나간 야구공 하나 2단계 20 은유법, 밤하늘 3단계 21 Ⓐ는 사람이 아닌 '바람'이 편지를 전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고,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바람'을 '가을 우체부'에 빗대어 표현하였으므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01 이 글의 갈래는 시이다. 시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하여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이다. 시에서는 단어의 지시적 의미보다 함축적 의미를 주로 사용한다.

오답 풀이 ① 설명하는 글, ② 소설, ③ 주장하는 글, ⑤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0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과 밤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고 있으며, '운동장'은 밤하늘을 빗댄 표현일 뿐, 말하는 이가 지금 운동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빈 우레 소리'는 유성이 나타나는 순간을 청각적 심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어린이들의 함성을 비유한 것이 아니다.
④ 말하는 이는 밤하늘과 유성을 보면서 이를 운동장과 야구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⑤ 연민이란 상대방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감정을 말하는데,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별'이나 '유성'에 대해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다.

03 [A]는 다양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였고, 〈보기〉는 비유 표현 없이 객관적인 묘사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A]보다 표현의 참신성이 떨어지고 생생한 느낌이 덜하다.

오답 풀이 ① 말의 가락, 즉 운율이 더 잘 느껴지는 것은 [A]이다.
② [A]와 〈보기〉는 모두 밤하늘에 별이 반짝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적 상황과 전달하려는 의미는 유사하다.
④ 새로운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며 참신성을 살린 것은 [A]이다.
⑤ [A]와 〈보기〉는 모두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추상적인 관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04 ㉠은 원관념('밤하늘')과 보조 관념('별들의 운동장')의 관계가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이므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①에서도 '나'를 '어린 짐승'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② 의인법, ③ 설의법, ④, ⑤ 직유법이 각각 사용되었다.

[참고 자료] 설의법

누구나 알고 있거나 예측되는 결과를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독자가 답을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게 되어 의미가 강조된다.
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05 이 시에서는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아득히 들리는 함성'은 밤하늘의 별들이 운동회를 열고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표현한 것

이다. 즉, 별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므로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06 1, 3연은 '봄의 향기'와 '봄의 졸음'으로 정적인 이미지가, 2, 4연은 '봄의 불길'과 '봄의 생기'로 동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말하는 이는 '고양이의 털 → 고양이의 눈 → 고양이의 입술 → 고양이의 수염'의 순서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각 연이 '~에 ~도다. / 아라.'의 유사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④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등의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봄의 속성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도다', '-아라'와 같이 감탄의 뜻을 담은 영탄적 어조의 반복으로 음악적 효과를 주며 봄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 있다.

07 서술형 이 시는 고양이의 각 부위에 봄의 이미지를 대입하여, 고양이에게서 연상되는 봄의 속성을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08 이 시는 고양이에게서 연상되는 봄의 모습을 다양한 비유와 감각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말하는 이가 봄의 노래를 떠올리고 있는 시구는 찾아볼 수 없다.

09 이 시는 고양이의 각 부위를 통해 '봄의 향기', '봄의 불길(생명력)', '봄의 졸음(포근함, 나른함)', '봄의 생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거대하고 성대한 것을 의미하는 '웅장함'이나, 장엄하고 정숙한 것을 의미하는 '엄숙함'은 느낄 수 없다.

10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지닌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인 직유법이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와 ⓔ이다. ⓐ와 ⓒ는 의인법, ⓑ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11 ㉡에는 눈으로 보는 듯한 감각인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심상은 '저녁놀'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게 묘사된 ④이다.

오답 풀이 ① 미각적, ② 청각적, ③ 촉각적, ⑤ 후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참고 자료] 심상의 종류

시각적 심상	눈으로 색채, 명암, 모양, 움직임 등을 보는 느낌의 심상
청각적 심상	귀로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의 심상
미각적 심상	혀로 맛을 보는 듯한 느낌의 심상
후각적 심상	코로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의 심상
촉각적 심상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의 심상
공감각적 심상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져 둘 이상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심상

12 (가)는 밤하늘을 '운동장'에,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빗나간 야구공'에 비유하고, (나)는 봄을 '고양이'의 모습에 비유하여 대상을 참신하고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고양이의 ○○에', '~도다', '~아라' 등의 시어가 반복되어 리듬감을 느낄 수 있으나, (가)에는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정적인 이미지는 (나)의 1, 3연에서만 나타난다.
③ (가)에서는 밤하늘의 별들과 유성, (나)에서는 봄과 고양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⑤ 의성어는 (가)의 '쨍그랑'과 '또르르'에서만 나타난다.

13 (가)는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유성'은 한계로 인해 좌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 움직이는 자유로운 존재, 현실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다.

14 (가)는 밤하늘을 '운동장'에,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빗나간 야구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보기〉는 책에 나이테가 있다고 표현하며 책을 나무에 빗대고 있다.

15 (가)의 ⓐ는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눈에 보이는 듯이 그려 낸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⑤ 역시 들장미 열매의 붉은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미각적, ② 촉각적, ③ 후각적, ④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16 (나)의 제목인 '봄은 고양이로다'에 나타난 표현 방법은 은유법이다. ㉮와 ㉯는 빗방울을 은구슬과 옥구슬에 비유한 은유법이, ㉰는 꽃잎을 웃는 것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

17 서술형 (나)의 표현을 통해 '봄'과 '고양이'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연에서는 부드러움, 고움, 향기로움, 2연에서는 생명력, 3연에서는 고요함, 포근함, 4연에서는 생기가 나타난다.

18 ㉠, ㉢, ㉣은 은유법, ㉡은 의인법, ㉤은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원관념인 '유성'을 생략하여 표현한 ㉢과 달리, ㉣에는 원관념인 '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9** (가)에서는 '유성'을 '빗나간 야구공 하나'에 빗대어 표현하여 궤도에서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존재의 모습을 나타냈다.

2단계 **20** (가)의 1~2행에서는 은유법이 사용되었으며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별들의 운동장'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의 1~2행에 사용된 비유법이 은유법임을 썼다.	□
'별들의 운동장'의 원관념이 '밤하늘'임을 썼다.	□

3단계 **21** Ⓐ에는 '바람'이 '편지'를 전해 준다고 하며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바람은 가을 우체부'에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에 나타난 표현 방법인 의인법과 은유법을 모두 썼다.	□
의인법과 은유법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각각 적절한 근거를 들어 썼다.	□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태로 썼다.	□

(2) 상징 표현

내공 쌓기

19쪽 | 01 ③ 02 ⑤ 03 ③ 04 ③

0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고단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은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말하는 이가 장소를 옮겨 다니고 있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에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난다.
② '우리가 눈발이라면 ~자.'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함박눈', '편지', '새살'과 같은 긍정적 의미의 시어와 '진눈깨비', '바람', '상처'와 같은 부정적 의미의 시어를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⑤ '~자'라는 청유형 문장을 통해 말하는 이의 의지를 드러내고, 독자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0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함박눈'과 같이 희망, 위로, 용기를 주는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03 제시된 시구 중에서 어렵고 부정적인 상황과 삭막하고 고달픈 삶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세상을 춥고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한 ③이다. 말하는 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04 이 시에서 위로, 격려, 희망 등을 상징하는 긍정적 의미의 시어는 '함박눈', '편지', '새살'로, 말하는 이가 되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한편 무관심, 외면, 고통, 슬픔 등을 상징하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는 '진눈깨비', '바람', '깊고 붉은 상처'로, 현실의 고통을 나타낸다.

족집게 쏙 예상 문제

본문 20~23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⑤ **05** • 긍정적인 의미: 함박눈, 편지, 새살 • 부정적인 의미: 진눈깨비, 바람, 상처 **06** ③ **07** ⑤ **08** ③ **09** ③ **10** ⑤ **11** ④ **12** ⑤ **13** ⑤ **14** • ㉠이 상징하는 사람: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거나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존재 • ㉡이 상징하는 사람: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주는 존재 **15** ② **16** ④ **17** ④ **18** ② **19** ②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20** 함박눈, 편지, 새살 2단계 **21** ⓐ는 '달'을 의미하며, 포용력 있고 과묵한 태도를 상징한다. 3단계 **22**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시어는 '하얀 들꽃'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

01 이 시는 명령형 문장이 아닌 '~자'로 끝나는 청유형 문장을 반복하여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독자의 공감과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02 시에서 말하는 이는 시인이 내세우는 대리인으로 시인과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시가 말을 건네듯이 표현되었다고 해서 시인과 말하는 이를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03 이 시의 주제는 '이웃과 더불어 따뜻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다. ③ 또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며, 이웃의 슬픔을 공감하고 이웃을 위로하는 마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04 이 시는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더불어 살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를 추천해 주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는 자산가이다.

05 서술형 이 시에서 '함박눈', '편지', '새살'은 위로, 격려, 희망 등을 상징하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진눈깨비', '바람', '상처'는 무관심, 고통, 슬픔 등을 상징하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06 이 시에서 '진눈깨비'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거나 더욱 힘들게 하는 존재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진눈깨비'를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진눈깨비'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거나 더욱 힘들게 하는 부정적 존재로, 무관심, 외면, 우울, 불행 등을 의미한다.
④, ⑤ '함박눈'은 어려운 이웃을 위로해 주는 존재로, 위로, 격려, 희망 등을 의미한다.

07 '잠 못 든 이'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다. 고민과 괴로움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희망을 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8 이 시는 조선 시대에 창작된 시조로, 3음보가 아닌 4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시조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로 고려 중기 이후부터 조선 시대까지 대표적인 시가 문학으로 향유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창작되고 있다. 3장 6구 45자 내외, 4음보의 정형화된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종장의 첫 어절은 반드시 3음절로 고정한다.

09 이 시조는 설의, 대조, 의인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 진리를 표현하는 역설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물', '바위', '달'과 같은 자연물을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구름'과 '바람'은 '물'과 대조되고, '꽃'과 '풀'은 '바위'와 대조되어 '물'과 '바위'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⑤ '물', '바위', '달'의 품성을 예찬하는 태도를 통해 시인이 지향하는 인생관을 알 수 있다.

10 [A]에서는 세상을 밝게 비추면서도 과묵한 '달'의 품성을 예찬하고 있다. 즉 '달'은 포용하는 태도와 과묵한 태도를 상징한다. 따라서 ⑤와 같이 포용력 있는 사람이 [A]에 가장 가깝다.

11 ㉣의 '바위'는 변하지 않는 존재로, 쉽게 변하는 '꽃', '풀'의 특성과 대조되어 굳건하고 의연한 태도를 상징한다.

오답 풀이 ㉠ '구름'과 ㉢ '꽃'은 쉽게 변하는 존재이다.
㉡ '물'은 깨끗하고 그칠 때가 없는 존재로, 정직하고 청렴한 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 '작은 것', 즉 '달'은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 존재로, 포용적이고 과묵한 태도를 상징한다.

12 (가)는 자연물인 '함박눈'과 '진눈깨비'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 역시 자연물인 '물', '바위', '달'의 속성을 예찬하며 말하는 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13 (가)는 허공에서 흩날리는 '진눈깨비'가 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는 따뜻한 '함박눈'이 되자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자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14 서술형 '진눈깨비'는 공중에서 머뭇거리며 흩날리는 것으로 보아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한 존재임을, '함박눈'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따뜻함을 전하는 것으로 보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15 이 시의 말하는 이는 ㉢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 '편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잠 못 든 이'는 현실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의미함을 짐작할 수 있다.

16 (나)는 자연물인 '물', '바위', '달'의 특성을 통해 각각이 가진 품성을 예찬하고 있다. 한편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제2수의 초장과 중장, 제3수의 초장과 중장이 대구를 이루고 있고, 제3수와 제6수의 중장에 각각 설의법이 나타나고 있다.
② (나)는 자연물인 '물', '바위', '달'의 품성을 예찬하고 있다.
③ 각 수의 종장은 '좋고도', '아마도', '보고도'로,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
⑤ 말하는 이는 '물'이 깨끗하고 멈추지 않아서 좋아하고 있고, '바위'가 변치 않아서 좋아하고 있다.

17 제2수를 예로 들면, '구름 빛이 / 좋다 하나 / 검기를 / 자주 한다.'와 같이 4, 4, 3, 4의 비슷한 글자 수가 반복되고 있고, 4음보가 초장, 중장, 종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18 '바람'은 소리가 맑지만 그칠 적이 많은 것으로, 그치지 않는 '물'과 대비되는 부정적인 존재이다. '작은 것'은 만물을 다 비추면서도 과묵한 것으로, 말하는 이가 예찬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바람'과 '작은 것'의 상징적 의미는 서로 다르다.

19 (나)는 깨끗하면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의 영원한 생명성을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는 '소민'의 감상이 적절하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20** 이 시에서 '함박눈', '편지', '새살'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희망이 되는 존재를 상징한다.

2단계 **21** (나)에서 '너', 즉 '달'은 세상을 밝게 비추면서도 말이 없는 품성을 지녔다. 즉 포용하는 태도, 과묵한 태도를 상징한다.

평가 기준	확인
ⓐ가 '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썼다.	□
'달'이 상징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썼다.	□

3단계 **22** '함박눈'은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 〈보기〉에서 '하얀 들꽃'은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존재로 '함박눈'과 의미가 통한다.

평가 기준	확인
'함박눈'과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하얀 들꽃'을 썼다.	□
'하얀 들꽃'의 의미를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식의 문장으로 썼다.	□

(3) 자료 찾으며 책 읽기

내공 쌓기 ❶

27쪽	**01** ① **02** ① **03** ① **04** ㉮ (모둠 구성원의 읽기) 수준, ㉯ (모둠 구성원과 함께 정한) 분야

01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할 때는 모둠 구성원의 관심 분야, 읽기 수준, 읽기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가가 유명한지의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02 (가)에서 '나라'와 '정우'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와 관련된 책을 읽기로 정하였다.

03 (나)에서 '정우'는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나라'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준서'는 사서 선생님께 책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또한 '지민'은 '정우'의 추천대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신문 기사나 블로그의 서평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예전에 읽었던 책을 찾아보겠다고 한 모둠원은 없다.

04 서술형 '나라'는 ㉡의 책이 어려운 낱말과 개념이 너무 많아서 읽기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모둠 구성원의 읽기 '수준'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민'은 ㉢의 책이 모둠 구성원이 정한 환경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함께 읽기로 한 책의 '분야'에 속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공 쌓기 ❷

29쪽 | 01 ⑤ 02 ③ 03 ①

01 (가)는 '정우'가 책을 읽고 쓴 독서 일지이다. '정우'가 쓴 독서 일지에는 인상적인 부분과 그 까닭, 낯선 낱말이나 모르는 개념, 더 알고 싶은 내용,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느낀 점, 읽은 내용에 관해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⑤ '모둠 구성원들과 함께 독서하면서 좋았던 점'은 책을 모두 읽고 책 읽기 경험을 나눌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02 (나)에서 '정우'네 모둠은 주제와 관련하여 국어사전, 도서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찾았다. 이처럼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을 때에는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신의 자료만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자료를 찾을 때에는 사전, 영상물, 인터넷 자료, 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낯선 낱말의 뜻은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을 활용해서 찾을 수 있다.
④ (나)에서 빛 공해 영상물을 찾았듯이, 책의 주제와 관련된 영상물을 찾아볼 수 있다.
⑤ (나)에서 인터넷을 통해 인공조명에 대한 자료를 찾았듯이, 인터넷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다.

03 모둠 구성원이 함께 책을 읽고 그 경험을 공유하면 책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족집게 쏙 예상 문제

본문 30~31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5 ② 06 ③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07 ⓒ－ⓓ－ⓑ－ⓐ 2단계 08 도서관, 인터넷, 신문 기사 등 3단계 09 '불야성'이라는 낱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다.

01 (가)는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나라'와 '정우'는 서로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읽기로 하였다. 일지를 작성하면서 읽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책 선정이 끝난 후인 '자료 찾으며 책 읽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02 학급 문고에서만 책을 고르게 되면 모둠이 정한 분야와 관련한 책이 없을 수도 있고, 책의 종류가 한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친구들은 서점과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정우'와 같이 서점에 가서 책의 차례와 내용을 훑어볼 수 있다.
② '준서'가 사서 선생님께 책 추천을 부탁드리기로 한 것처럼, 전문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④ '지민'과 같이 새로운 책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나 독자들이 블로그에 올린 서평을 찾아볼 수 있다.

03 (다)에서 '나라'는 '지민'이 고른 책은 어려운 낱말과 개념이 너무 많아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고, '지민'은 '준서'가 고른 책이 함께 읽기로 한 환경 분야의 책이 아니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할 때에는 모둠 구성원의 수준에 맞고(ㄴ), 모둠 구성원이 읽기로 정한 주제에 맞는(ㄹ) 책을 골라야 함을 알 수 있다.

04 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낯선 낱말이나 모르는 개념, 더 알고 싶은 내용 등을 찾아보아야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독서를 할 수 있다.

05 책이 모둠 구성원의 읽기 수준에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 보는 것은 책을 읽은 후가 아니라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오답 풀이 책을 읽은 후에는 함께 책을 읽은 모둠 구성원과 글쓴이의 의도,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자신의 생각이 바뀐 부분,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등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06 독후감은 혼자 써야 하는 글이라고 볼 수 없다. 독후감을 작성한 후에 모둠 구성원과 공유하면 생각을 넓고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제목은 글 내용을 알려주는 얼굴이므로 적절한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다.
② 모둠원과 대화를 나누며 책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다.
④ 독후감을 쓸 때 문단마다 그 성격이 뚜렷하고, 문단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면 소제목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⑤ 독후감을 쓰면서 책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게 되므로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07** 책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함께 읽을 책의 분야를 정하고(ⓒ), 책을 선정하는 기준을 세운 후(ⓓ),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한다(ⓑ). 이후 구체적인 책 읽기 계획을 세운다(ⓐ).

2단계 **08** 책을 읽으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낯선 용어는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 등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도서관, 인터넷, 신문 기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적절하게 썼다.	□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을 두 가지 이상 썼다.	□

3단계 **09** 〈보기〉는 '불야성'의 뜻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찾은 이유는 '불야성'의 뜻을 알기 위해서이고, 낱말의 뜻은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자료를 찾은 이유는 '불야성'이라는 낱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임을 썼다.	□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음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대단원 평가

01 ②	02 ③	03 ③	04 ④	05 ③
06 ㉠ 고양이, ㉡ 꽃가루, ㉢ 금방울			07 ⑤	08 ①
09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		10 ③	11 ③	12 ④
13 ④	14 ③	15 ②	16 ①	17 ⑤
18 ⑤	19 유성	20 ③	21 ③	22 ⑤
23 ②	24 ①	25 ③	26 ②	

01 (나)는 각 연이 유사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다', '-아라'와 같은 영탄적 어조를 각 연 끝에서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의 말하는 이는 모두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시적 상황만 표현하고 있다.
③, ⑤ (가)는 은유법, 의인법을 사용해서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유성의 생동감을 인상 깊게 표현하였고, (나)는 직유법, 은유법을 사용해서 봄의 느낌과 생명력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인상 깊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④ (가)는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나)는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02 (가)는 비유 표현 중 은유법과 의인법이, (나)는 직유법과 은유법이 사용되고 있다. ③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으면서도 잊었다고 표현하는 반어법만 사용되었을 뿐, 비유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낙엽'을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라고 표현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내 영혼의 슬픈 눈'을 '샘터에 물 고인 듯'이라고 하여 '듯'을 써서 직접적으로 비유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 '토란잎'이 간지럼을 탄다고 표현하고, '물방울'이 표정을 짓는다고 표현한 것에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⑤ '~햇발같이', '~샘물같이'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햇발'이 속삭이고, '샘물'이 웃음 짓는다고 표현한 것에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참고 자료] 반어법

나타내려는 뜻과 반대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03 (가)의 말하는 이는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과 유성을 바라보고 있을 뿐, 어린 시절을 회상하거나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04 (가)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의 풍경과 그 사이로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운동회를 벌였나'라고 한 것은,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유하여 인상 깊게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운동회에서 응원하는 소리를 직접 삽입하는 것은 시적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05 (나)는 '봄'의 특성을 '고양이'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이 시를 읽으면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과 같은 모습을 통해 생명력이 가득하며 포근하고 따뜻한 '봄'의 분위기를 인상적으로 느낄 수 있다.

06 서술형 ㉠의 원관념은 '봄', 보조 관념은 '고양이'이다. 둘은 곱고 포근하며 생기가 느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의 원관념은 '고양이의 털', 보조 관념은 '꽃가루'이다. 둘은 향기롭다는 공통점이 있다. ㉢의 원관념은 '고양이의 눈', 보조 관념은 '금방울'이다. 둘은 크고 동그랗다는 공통점이 있다.

07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을 때에는 우선 모둠에서 정한 주제와 기준에 맞는 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고, 그중에서 모둠 구성원과 함께 읽을 책 한 권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읽기 계획을 구체화하고 계획에 따라 책을 읽는데, 모르는 낱말이나 개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참고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는다. 책을 읽은 후에 그 책에 대한 감상을 모둠 구성원과 함께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독후감을 작성한다.

08 관심 없는 분야나 지나치게 어려운 수준의 책을 읽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책 읽기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으므로, 모둠 구성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09 서술형 낯선 낱말이나 모르는 개념, 더 알고 싶은 내용에 관한 자료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읽으면,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인쇄 매체 중 낱말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묻고 있으므로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 등이 적절하다.

10 독서 일지를 작성하면 독후감이나 서평을 쓸 때 도움이 되고,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책을 읽은 후에 책 읽기 경험을 공유할 때, 독서 일지를 얼마나 자주 작성하였는지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서 일지 작성에 대한 경험은 모둠 구성원과 나누기보다 자기 점검을 할 때 필요하다.

11 '사람이 사는 마을 / 가장 낮은 곳'은 이웃 사이의 정이 사라진 삭막한 공간이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뜻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함박눈', '새살' 등과 같은 상징 표현을 활용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함박눈', '편지', '새살'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시어와 '진눈깨비', '바람', '상처'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시어가 서로 대립을 이루며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④ 청유형 문장의 반복은 형식적으로는 운율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내용적으로는 말하는 이의 의지를 드러내며 독자의 공감과 동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말하는 이는 '잠 못 든 이'의 창문가로 가서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를 치료해 주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겪는 고통과 시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2 (가)의 말하는 이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 주는 존재가 되자고 당부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에게 스스로 노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나)의 말하는 이는 깨끗하고 그칠 때 없는 '물', 변치 않는 '바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변하지 않는 굳건하고 의연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보기〉의 말하는 이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유연한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나)와 〈보기〉의 말하는 이는 서로 반대되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방원, 「하여가」

이 작품은 조선 건국을 반대하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지은 시조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는 반드시 고려의 왕을 섬길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는 새로운 왕조를 세워 오랫동안 번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4 (나)에서 ㉠ '바람'과 ㉢ '꽃'은 쉽게 변하는 존재로, 말하는 이는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 '물', ㉣ '바위', ㉤ '작은 것(달)'은 깨끗함, 영원함, 과묵함 등의 긍정적인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15 (가)는 비유의 방식을 통해, (나)는 상징의 방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였다. (나)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함박눈' 같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감각적 대상을 활용해 표현하는 상징이 사용되었으므로, 대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한 ②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은유법, 의인법과 같은 비유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나)는 시인이 지향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진눈깨비'와 '함박눈'처럼 상징하는 바가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나, (가)에는 이와 같은 대립적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의 말하는 이는 밤하늘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며, (나)의 말하는 이는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자는 의지를 드러내며 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⑤ (가)는 유성을 '빗나간 야구공 하나'에 비유한 은유법과, 별들의 모습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으며 원관념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나)는 원관념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상징적인 시어만 제시하고 있다.

16 (가)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비유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일상적이고 지시적인 시어가 아니라,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17 〈보기〉의 말하는 이는 '길가의 과일 장수나 생선 장수', '아픈 애기를 업고 뛰어가는 여인' 등을 외면하는 '너'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나)와 〈보기〉의 말하는 이는 모두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8 ㉠은 사람이 아닌 '별들'이 '부산하게 바자닌다.'라고 하여,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인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제시된 표현 중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는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19 **서술형** '빗나간 야구공 하나'의 원관념은 '유성'으로, 둘 사이에는 '궤도를 벗어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시는 이와 같은 은유법을 사용하여 '유성'의 모습을 더욱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 (나)의 ㉢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보기〉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은 추위에 떠는 할머니가 귤을 팔고 있는 공간인 '겨울밤 거리'이다.

21 (가)~(다)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인 시이다. 즉 시는 함축적인 말로 느낌을 전달하므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기 위해 뜻을 찾으면서 읽는 것은 시 감상을 방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시를 읽을 때에는 말의 가락을 느끼고(①), 비유와 상징 표현을 파악하고(②), 인상 깊은 표현에 주목하고(④), 말하는 이의 정서를 이해하며(⑤) 읽는 것이 좋다.

22 (다)의 말하는 이는 '제6수'에서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 '달'의 과묵한 품성을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말하는 이가 ⑤와 같이 큰 목소리로 의견을 표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다)의 말하는 이는 '바위'의 변치 않는 태도와, '달'의 주변 사람을 포용하는 태도를 예찬하고 있다.
②, ④ (나)의 말하는 이는 허공에서 흩날리는 '진눈깨비'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내리는 '따뜻한 함박눈'이 되자고 하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23 (나)의 ⓐ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며, ⓑ는 어려운 현실로 인해 힘겨워하는 사람이다. 즉 ⓐ와 ⓑ에서는 현실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②와 같이 일출을 기다리는 것은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으며 희망찬 모습에 가까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24 ㉠은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의 모습을 '부산하게 바자닌다.'라고 사람에 비유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즉 ㉡은 별들의 모습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으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25 '준서'가 추천한 책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환경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함께 읽기에 적합하지 않다.

26 책을 읽은 후 독후감을 쓰는 활동은 전문가의 비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다.

2. 헤아려 읽고, 맞추어 쓰고

(1) 예측하며 읽기

내공 쌓기 ❶

43쪽 | 01 ② 02 ⑤ 03 ①

01 이 글은 사회 심리학의 개념인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글쓴이는 상대방의 첫인상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심리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거나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사회 심리학의 개념을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④ 이 글은 사람들이 상대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⑤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설명하는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02 이 글의 ❶~❽을 통해 '나라'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예측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다른 독자들이 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를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❼에서 '바이어스'라는 낱말의 뜻을 통해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개념의 뜻을 예측하고 있다.
② ❸에서 책의 차례를 보고 책의 전체 구조를 예측하고 있다.
③ ❻에서 사람의 첫인상이 6초 만에 결정된다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질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④ ❹에서 글의 제목을 보고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를 예측하고 있다.

03 '가운데 – 2'의 내용을 보면, 뚱뚱한 사람을 보면 낙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는 것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뚱뚱한 사람 대부분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낙천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가운데 – 2'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잣대로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해 버린다.'라는 부분에 드러난다.
③, ④ '가운데 – 1'에서 사람들은 '얼굴 생김새, 체격, 키 등의 겉모습과 몸짓, 말투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상대의 첫인상을 무리 없이 형성하며, 이 첫인상만으로 상태의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고 하였다.
⑤ '가운데 – 4'에서 사회 심리학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내공 쌓기 ❷

45쪽 | 01 ④ 02 ② 03 ② 04 ③

01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측하며 읽는다고 해서 글의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예측하며 읽기란 독자의 배경지식, 글쓴이에 대한 정보, 차례에 드러난 정보, 글에 나타난 정보나 읽기 맥락, 책의 제목이나 표지에 드러난 정보 등을 활용하며 읽는 것을 말한다.
② 예측하며 읽기를 통해 낱말이나 문장의 뜻, 글의 결말, 글의 구조, 이어질 내용, 글쓴이의 주장과 의도,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예측할 수 있다.
③, ⑤ 글을 예측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며, 글에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하며 글을 읽어야 하므로, 능동적인 읽기 태도를 기를 수 있다.

02 사회 심리학자인 스나이더와 스완은 실험 대상인 대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하는 질문으로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의 성격을 판단해 달라고 한 뒤, 내향적인 성격임을 증명하는 질문과 외향적인 성격임을 증명하는 질문 26개를 보여 주었다. 즉, 이 질문은 사람의 성격을 증명하는 질문으로, 첫인상에 대한 편견을 담은 질문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사회 심리학자인 스나이더와 스완은 실험 대상인 대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하는 질문으로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의 성격을 판단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내향적인 성격임을 증명하는 질문과 외향적인 성격임을 증명하는 질문 26개를 대학생들에게 보여 준 다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질문 12개를 자신들이 제시한 26개의 질문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였다.
④, ⑤ 실험 결과, 실험 대상자 대부분은 그 사람의 성격이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를 먼저 판단한 다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만 선택하였으며, 이 실험 결과를 통해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입증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 심리학

인간은 사회 환경 속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회의 문화·규범·제도 등의 규제를 받으면서 생활한다. 사회 심리학은 이처럼 여러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인간의 경험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학문이다.

03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제멋대로 확신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의 성격을 555개나 되는 단어로 정리한 것은 사람의 성격이 매우 다양함을 보여 주는 사례로, 사람의 성격을 함부로 규정하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반박하는 예이다.

오답 풀이 ① '가운데 – 6'에서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주된 근거도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고 하였다.
③, ⑤ 외모라는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러한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는 것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자신이 평소에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어긋난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사례에 해당한다.

04 글쓴이는 끝부분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족집게 예상 문제

본문 46~49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① 06 ③
07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08 ② 09 ① 10 ④ 11 ① 12 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3 (마) 2단계 14 책의 제목과 표지를 활용하여 책의 내용을 예측하였다. 3단계 15 사회 심리학을 대중에게 전하는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대중에게 심리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 같다.

01 이 글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설명문을 읽을 때에는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알고 싶은 부분만 골라내며 읽으면 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설명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읽으면 정보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설명문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은 적절하다.
④, ⑤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따라서 글 속에 제시된 지식과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믿을 만한 것인지 판단하며 읽어야 하고, 사실과 의견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읽어야 한다.

02 독자는 〈보기〉에서 글의 제목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하여, '글쓴이는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쓴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를 예측하고 있다.

03 ㉢은 질문의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제한된 정보로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뒷부분에서 그 원인이 '가설 검증 바이어스'임을 밝히고 있다. 즉 ㉢에서 질문의 방식으로 서술한 것은 질문의 해답인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므로 뒷부분에 독자의 반응을 기대하는 내용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설명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조는 '처음 – 가운데 – 끝'이며, ㉠은 글의 '처음'에 해당함을 예측할 수 있다.
② 독자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질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④ 독자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용어의 뜻을 예측하고 있다.
⑤ ㉤은 스나이더와 스완의 실험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뒷부분에서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04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야 한다. Ⓐ의 앞부분에서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의 뒷문장에서는 Ⓐ라는 결과를 통해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입증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는 대학생들이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따라 행동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④ 자신이 형성한 첫인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만을 선택하였다.'가 적절하다.

05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과학적인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 변화 문제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현상만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미국 국립 해양 대기청(NOAA)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제목에 '진짜 충격'이라는 인상적인 낱말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여러 기관 및 단체가 발표한 자료와 통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⑤ '더위'는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재로, 글쓴이는 (가)에서 더위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며 기후 변화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06 이 글의 (가)에서는 더위와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이 나타나는데, 주로 더위가 주는 불편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더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할 것 같다고 예측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그래프는 '역대 가장 더웠던 연도 순위'로, 독자들은 이를 통해 지구의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임을 예측하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다.
② 제목의 '충격'이라는 낱말을 통해 '더위'가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④ 서론인 (가)에서 더위를 통해 근본적인 고민 즉,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본론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우리가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글쓴이는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자는 주장을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07 서술형 이 글에서 글쓴이의 주장은 결론인 (라)에 잘 드러나 있다. (라)의 뒷부분에서 글쓴이는 '지금부터라도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자원을 아껴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기후 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8 이 글은 제한된 정보로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

며, '첫인상'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 그 함축적인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사람들이 첫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여,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당부를 제시하는 과정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③ (라)에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람의 성격을 555개의 단어로 정리한 연구 내용을 제시하여, 사람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④ 뚱뚱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을 보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잣대로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해 버리는 것,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등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개념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뒤,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글쓴이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09 (라)에서 사람의 성격이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의 성격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 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사람들은 상대의 얼굴 생김새, 체격, 키 등의 겉모습과 몸짓, 말투 정도만으로도 상대의 첫인상을 무리 없이 형성한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주된 근거도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고 하였다.
④ (라)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첫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첫인상은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상대의 성격을 제한된 정보뿐인 자기의 잣대로 재단하여 마음대로 형성한 것이기에 위험하다고 하였다.

10 〈보기〉의 직장에서는 자상하던 사람이 집에서는 엄한 아버지로 군림하는 경우,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수줍어하던 사람이 친한 친구들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보이는 모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문장이 있는 (라)의 뒤에 들어가는 것이 글의 흐름상 적절하다.

11 〈보기〉는 독자가 예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통해 이 글도 첫인상을 쉽게 결정한다는 내용일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내용은 독자의 '배경지식'이고, 이를 활용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첫인상을 쉽게 결정한다는 내용임을 예측한 것은 '글의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내공 기르기

배경지식이란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경험이나 지식을 말해. 책을 읽을 때 배경지식을 활용하면 제목이나 글의 맥락을 보고 이어질 글을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고, 글을 읽을 때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지지.

12 글을 예측하며 읽는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예측하며 읽는 활동만으로 글을 직접 쓴 글쓴이보다 관련된 지식이나 이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3** 이 글의 글쓴이는 심리학 개념인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당부의 내용은 글의 결론 부분인 (마)에 나타난다.

2단계 **14** 〈보기〉는 책의 제목과 표지의 그림을 보고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책'임을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책의 제목과 표지를 활용하여 책의 내용을 예측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책의 제목과 표지를 활용하였다고 서술하였다.	□
책의 내용을 예측하였다고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3단계 **15** 〈보기〉에서는 이 글의 글쓴이를 소개하고 있다. 글쓴이는 사회 심리학자로, 사회 심리학을 대중에게 전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다. 글쓴이가 해 왔던 활동으로 보아,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이 글 역시 대중에게 심리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썼음을 예측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를 통해 글쓴이가 해 왔던 활동을 근거로 들어 서술하였다.	□
대중에게 심리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 같다.'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

(2) 통일성 있는 글 쓰기

내공 쌓기 ❶

53쪽 |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1 통일성 있는 글은 글의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글을 말한다. 통일성을 갖추면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가 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독자가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이 통일성을 갖춘다고 해서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내용이나 주제에 어긋난 내용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통일성은 글을 신속하고 빠르게 쓰는 요령과는 상관이 없다. 빠르게 쓰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글이 통일성을 갖추었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③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사건을 재미있게 넣는 것보다는, 하나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내용을 담는 것을 더 중시한다.

④ 통일성을 갖춘 글은 글의 모든 내용이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므로,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를 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02 (나)는 오빠가 우산을 들고 자신을 데리러 온 일을 중심으로 '남매간의 돈독한 우애'라는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반면 (가)에는 자신이 그날에 한 일, 강아지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소망,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자신의 꿈 등과 같은 너무 많은 내용이 유기적인 관계없이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가 내용상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는 한 편의 글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내용끼리의 연관성이 없어서 한 편의 글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일성이 없는 글이다.
④, ⑤ (나)는 '나와 오빠는 사이가 좋다.'라는 주제를 전하기 위해 오빠가 우산을 들고 자신을 데리러 온 일을 중심으로 글을 서술하고 있어,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03 '정우'는 대화에서 친구들에게 독도를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고 하였고, 열심히 준비해서 친구들에게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상 독자는 선생님이 아닌 '정우'의 중학생 친구들이다.

오답 풀이 ①, ④ '정우'는 친구들에게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하였다.
③ '정우'는 친구들에게 독도를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설명하는 글은 대체로 처음 – 가운데 – 끝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⑤ '정우'는 독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이므로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독도를 설명하는 글을 쓰겠다고 하였다.

04 글을 쓰기 전에 글의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종류, 주제 등 글쓰기 상황에 대해 계획하는 것은 글을 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공 기르기

글을 쓰기 전 계획하기 단계를 거치면 글을 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글의 종류를 정하고 나면 글을 어떤 구조로 전개할지에 대한 고민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또한 예상 독자를 정하고 나면 글의 수준이나 문체, 글의 내용 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내공 쌓기 ❷

55쪽 | **01** ② **02** ④ **03** ⑤ **04** ②

01 (나)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로, 독도의 바다에 사시사철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손님'은 '화려한 색깔로 치장한 열대 어종'을 비유하는 것이므로, (나)에서 다양한 여행객이 많이 오가는 풍경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독도와 관련된 근대 이전의 기록'을 간략하게 설명한 백과사전이다.
③ (다)는 기사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립 수산 과학원에서 '찾아가는 독도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신문 기사이다.
④ (라)는 독도가 국제 관계적 위치로 살펴보면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동해의 중심에 있고,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경계에 있어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는, 독도의 중요한 위치적 특징을 설명한 책이다.
⑤ (마)는 사진 자료를 통해 독도의 구성 및 위치를 보여 주는 인터넷 자료이다.

02 (라)의 '책'에서는 독도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위치적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독도의 위치는 위로는 러시아, 왼쪽에는 우리나라,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는 동해의 중심이다. 또,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경계에 있어서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독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나)는 사시사철 다양한 어류들이 사는 독도가 환경·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는 국립 수산 과학원에서 독도 사진전을 개최함을 안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마)는 사진을 통해 독도의 구성과 위치를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3 (가)는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독도 및 울릉도에 관한 기록을 간략하게 설명한 자료이므로, 독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독도와 관련된 근대 이전의 기록을 간략하게 설명한 자료로, 독도의 날씨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② 독도의 구성과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진을 통해 독도의 구성과 위치를 보여 주고 있는 (마)의 인터넷 자료이다.
③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것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독도의 바다에 사시사철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설명한 (나)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이다.
④ (가)는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 실록 지리지』 등 근대 이전의 문헌에 독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독도와 관련하여 구전되어 온 설화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04 〈보기〉에서 '정우'는 독도를 설명하는 글을 써서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②와 같이 독도와 울릉도를 여행하는 방법을 안내한 블로그 자료는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알리는 글을 쓸 때 활용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독도에 다양한 어종이 서식함을 보여 주는 사진 자료를 통해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를 알릴 수 있다.
③ 독도에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에 관한 사전의 자료를 통해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알릴 수 있다.
④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독도의 역사를 담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독도의 역사를 알릴 수 있다.
⑤ 독도가 해저 화산의 성장과 진화의 과정을 보여 준다는 사실을 통해 독도의 지리적 가치를 알릴 수 있다.

내공 쌓기 ③

57쪽 | 01 ③ 02 ④ 03 (다) 04 ③

01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과정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와 고쳐쓰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중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쓰기 상황, 즉 글의 목적, 예상 독자, 주제, 글의 종류 등을 정한다.
②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 중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선정한다.
④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계획한 내용과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한다.
⑤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통일성을 고려하여 문장 수준, 문단 수준, 글 전체 수준에서 표현한 글을 고쳐 쓴다.

02 '정우'가 쓴 개요에서 '가운데 – 2 – 라. 독도를 관광하는 방법'은 상위 항목인 '가운데 – 2. 독도의 역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통일성을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03 서술형 (가), (나), (라)는 모두 독도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다)는 독도에 살았던 희귀 생물 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깨뜨리고 있다. 따라서 고쳐쓰기 단계에서 (다)를 삭제해야 한다.

04 ㉢은 독도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는 독도가 환경·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음을 설명하는 (나)의 중심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또한 ㉢ 뒤의 내용을 보면 독도에 다양한 희귀 생물이 산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이와도 맞지 않다. 따라서 문단의 통일성을 깨뜨리므로 삭제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은 독도 주변의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이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하다는 것을, ㉡은 독도 주변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기에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모두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는 (가)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깊다.
④ ㉣은 독도에는 희귀한 생물들이 살아서 섬 전체가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를 설명하는 (나)의 내용과 관련이 깊다.
⑤ ㉤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독도의 위치적 가치를 설명한 (라)의 내용과 관련이 깊다.

족집게 쏙 예상 문제

본문 58~61쪽

01 ② 02 ② 03 ③ 04 ㄴ – ㄹ – ㅁ – ㄷ – ㄱ 05 ④
06 ⑤ 07 ④ 08 ⑤ 09 ③ 10 ③ 11 ①
12 ③ 13 ③ 14 ⑤ 15 ①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6** (나) 2단계 **17**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 3단계 **18** 삭제해야 할 문단은 (다)이다. (다)의 중심 내용은 '독도에 살았던 강치'이고, 이 글의 주제는 '독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는 글의 통일성을 깨뜨리므로 삭제해야 한다.

01 (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이고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이 주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오답 풀이 ①, ⑤ (가)는 한 편의 글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성이 부족하여 주제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
③, ④ (나)는 첫문장에서 알 수 있듯 '오빠와 나의 돈독한 우애'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빠가 비오는 날 자신을 마중 나왔던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성을 잘 갖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내공 기르기

'유기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 유기적이란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 낼 수 없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야. 각 부분이 서로 관련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02 (나)의 주제는 '남매간의 돈독한 우애'이다. 따라서 ②와 같이 어머니가 아프실 때 오빠가 속상해한 일화는, 오빠와 '나'의 우애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글의 통일성을 깨뜨린다.

03 각 문장의 내용이 문단의 중심 내용과 연결되고, 각 문단의 내용이 글의 주제와 연결되어 한 편의 글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은 글의 '통일성'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객관성'이란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다.
② '사실성'이란 정확한 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④ '타당성'이란 주장에 대한 의견이나 근거, 이유(사실)가 타당해야 하는 것이다.
⑤ '체계성'이란 글의 구성을 짜임새 있게 정해서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04 서술형 글을 쓸 때에는 먼저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의 목적, 예상 독자, 주제, 글의 종류 등을 정하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야 한다.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글의 흐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요를 짜고, '표현하기' 단계에서 주제에 맞게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글을 쓴다.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단계에서 글의 통일성을 점검하며 글을 고쳐 쓴다.

05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구조화한 글의 뼈대'는 '개요'이다. 개요를 통해 앞선 단계에서 생성한 내용들을 배치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게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적절히 배열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고쳐쓰기'는 작성한 글을 통일성을 고려하여 고쳐 쓰는 단계로, 글의 주제와 관련없는 문단은 삭제하고, 각 문단에서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없는 문장은 삭제하며, 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동해야 하는 문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② '계획하기'는 글의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종류 등을 결정하여 앞으로 어떻게 글을 써 나갈 것인지를 계획하는 단계이다.
③ '표현하기'는 계획한 내용과 개요를 참고하여 통일성 있게 글을 쓰는 단계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
⑤ '내용 생성하기'는 글을 쓰기 위해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 중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만을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06 '지민'과 '정우'의 대화에서 '정우'는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친구들에게 독도를 설명하는 글을 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우'가 어떤 다양한 매체를 참고하여 글을 쓸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정우'는 독도를 설명하는 글을 써서 친구들에게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하였다.
② '정우'는 텔레비전에서 독도를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본 것이 동기가 되어 친구들에게 독도를 설명하는 글을 쓰기로 결정하였다.
③ '정우'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④ '정우'는 국어 수행 평가로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07 '정우'는 '친구들에게 독도를 설명하는 글'을 쓰려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우'가 쓰게 될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다.

오답 풀이 ① '감상문'은 책이나 영화, 음악, 미술 작품 등을 통해 떠오르는 느낌이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글이다.
② '기행문'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이다.
③ '보고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사, 실험, 행사, 연구 등의 과정이나 결과를 일정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체계적으로 쓴 글이다.
⑤ '주장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해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내세워 읽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08 (마)는 외교부 독도 누리집의 자료로, 사진을 통해 독도의 구성 및 위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사진만으로 독도의 역사적 중요성을 홍보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므로 자료 활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독도 및 울릉도에 관한 기록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독도가 오래 전부터 우리 영토였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나)는 독도의 바다에 다양한 어종이 서식함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를 통해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③ (다)는 국립 수산 과학원에서 독도 사진전을 개최할 것임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를 통해 독도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라)는 독도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를 통해 독도의 위치적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9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국립 수산 과학원에서 독도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안내한 신문 기사 (다)를 활용할 수 있다.

10 이 개요의 내용에서 독도에 가해지는 위협이나 독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③과 같이 글의 제목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개요에서는 독도의 지리, 역사, 가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독도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개요로 볼 수 있다.
② 이 개요의 '가운데'에서는 독도의 지리, 독도의 역사, 독도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내용들 간의 상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④ '가운데－1－나. 경제적 가치'는 '가운데－1－독도의 지리'보다는 '가운데－3. 독도의 가치'와 내용상 더 가까우므로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가운데－2－라. 독도를 관광하는 방법'은 상위 항목인 '가운데－2. 독도의 역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이 개요에서 '독도의 위치와 구성'은 내용상 '가운데－1. 독도의 지리'와 가장 관련이 깊으므로, 하위 항목으로 추가되기에 적절하다.

12 (나)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독도가 해저 화산의 성장과 진화의 과정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치가 있으며, 희귀한 생물들이 많이 살아 섬 전체가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를 보여 주는 것으로, ③ '독도의 사회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 환경·생태학적 가치, 독도의 위치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전체 주제는 '독도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는 독도 주변의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이기 때문에 어류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독도 주변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면서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④ (다)에서는 먹이가 풍부한 독도 주변에서 수만 마리가 서식했으나, 일제 강점기 때 무자비한 포획으로 멸종된 독도 강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⑤ (라)에서는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동북아 강대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독도의 위치적 가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3 (다)를 보면, 독도에 살던 강치는 먹이 부족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에 자행된 무자비한 포획으로 인해 멸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를 보면, '독도 주변에는 엄청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였다.
② (가)를 보면, '독도 주변의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이기 때문에 어류의 먹이인 플라크톤이 풍부하다. 그래서 겨울과 봄에는 명태 어장이, 여름과 가을에는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독도 주변 바다에서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기 때문에 매 계절 어장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④ (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독도에서 200해리 떨어진 수역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라고 밝히고 있다.
⑤ (나)에서는 독도에 서식하는 다양한 새, 물고기, 식물의 종류를 나열한 뒤 '이렇게 독도에는 희귀한 생물들이 살아 1999년에 섬 전체가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14 ㉤은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독도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면 ㉤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가)보다, 독도의 위치적 가치를 말하는 (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통일성 있게 글을 쓰기 위한 단계 중에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 중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만을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쳐쓰기' 단계에서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활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각 문단이 글의 주제와 관련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③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④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글의 흐름상 이동해야 하는 문장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⑤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참고 자료] '고쳐쓰기' 단계에서의 점검 사항

-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지금까지 작성한 글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설정한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무의미한 말은 삭제하고, 접속어 및 지시어를 조정하며, 피동문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문단 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의 배열 순서를 조정하며, 중심 문장 및 보충 문장과 연결어를 첨가한다.
-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제목 및 소제목을 조정하거나 첨가하며, 글 전체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인한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6** 〈보기〉의 자료는 독도의 바다에 사시사철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설명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독도에 사는 희귀한 생물들을 소개하며 독도의 생태학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나)이다.

2단계 **17** (나)에서는 독도의 환경이 특수하며, 그곳에 희귀한 생물들이 많이 살아서 독도가 환경·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라는 문장은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라는 (나)의 중심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문단의 통일성을 깨뜨리므로 삭제해야 한다.

3단계 **18** 이 글의 주제를 고려하여, 주제와 관련 없는 문단은 삭제해야 한다. 이 글의 주제는 '독도의 가치'로, (가), (나), (라)는 모두 '독도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으나, (다)는 '독도에 살았던 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글의 통일성을 깨뜨리므로 삭제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삭제할 문단을 (다)로 찾고, 중심 내용을 '독도에 살았던 강치'로 바르게 썼다.	□
(다)가 이 글의 통일성을 깨뜨린다는 내용을 썼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본문 62~67쪽

대단원 평가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⑤ **06** ④ **07** ④ **08** 기후 변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는 의미이다. **09** ⑤ **10** 주제 **11** ④ **12** ② **13** ② **14** ⑤ **15** ⑤ **16** • 글의 주제: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 / • 글의 종류: 설명하는 글 **17** ④ **18** ④ **19** ④ **20** ⑤ **21** (다) **22** ⑤ **23** ⑤ **24** ③ **25**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를 삭제해야 한다. (다)의 중심 내용은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인데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26** ②

01 글쓴이는 사람들이 첫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라고 하며,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나 사건을 예로 들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사람들이 극히 제한된 정보로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② (라)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혈액형 성격학'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심리학적 개념의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제재로 하는 설명하는 글이다.
④ (나)에서 사람들이 제한된 정보로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원인을 묻고, 그 원인이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고 대답하고 있다.

02 글쓴이는 첫인상은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상대의 성격을 제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므로 이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첫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혈액형에 따라 성격을 분류하는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주된 근거도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고 하였다.
③ (마)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첫인상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내린 판단에 들어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쉽게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듭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제멋대로 확신해 버리는 현상을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고 하였다.

03 ㉠은 이전에 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 것이고, ㉡은 기존에 알던 낱말의 뜻을 활용하여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용어의 의미를 예측한 것이다. 따라서 ㉠과 ㉡은 공통적으로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예측한 내용이다.

04 이 글은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는 글이다. 글쓴이의 경험과 인생관을 파악하며 읽는 것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의 감상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주장하는 글은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은 글이므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글에 드러난 사실과 글쓴이의 주장을 구분하며 읽어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다.
③ 주장하는 글(논설문)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이 뚜렷이 드러나는 글이므로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④ 글쓴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주장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읽어야 한다.
⑤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이나 구조, 글쓴이의 주장이나 근거 등을 예측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05 주장하는 글은 '서론 – 본론 – 결론'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의 '서론'인 (가), (나)에서 글쓴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대상인 '더위'를 환기시키며, 더위가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고민인 기후 변화에 대해 논할 것임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의 '본론'인 (다), (라), (마)에서는 본격적으로 기후 변화가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결론'인 (바)에서는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견해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

06 (마)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늘어났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더위는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고 날씨는 더 이상 인사치레의 주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② (라)에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기후 변화는 현대의 큰 문제이며 전 지구적 문제, 나아가 생존의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 국가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⑤ (바)에서 더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07 글에 활용되는 자료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시각 자료가 제시된다고 독자에게 무조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려면 자료의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③ (라)에는 역대 가장 더웠던 연도의 순위를 보여 주는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다. 이 그래프는 기온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어 독자에게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
②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⑤ 이 그래프를 보며 앞으로 지구의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08 서술형 (바)에서는 우리 사회가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바)의 내용을 바탕으로 썼다.	□
기후 변화 자체보다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썼다.	□

09 이 글의 글쓴이는 우리가 느끼는 더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기후 변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은 적절하지 않다.

10 서술형 〈보기〉는 글을 쓸 때의 '통일성'의 개념과, 통일성 있게 글을 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11 〈보기〉는 한 편의 글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유기적이지 않으며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주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글만으로는 〈보기〉의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지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12 통일성 있게 글을 쓰는 단계는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와 고쳐쓰기'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글의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종류와 같은 글쓰기 상황을 정하는 '계획하기' 단계이다.

오답 풀이 ①, 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선정한다.
③ '고쳐쓰기' 단계에서 글의 주제와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통일성을 고려하여 고쳐 쓴다.
④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선정한 내용을 글의 흐름에 따라 배치한다.

13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한다. 이때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며 정리한 후, 주제와 거리가 멀거나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고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14 '정우'는 '지민'에게 자신이 글을 쓰기 전에 계획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 대화를 통해 '정우'는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라는 글의 주제와 '친구들에게 독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라는 글의 목적, '친구들'이라는 예상 독자, '설명하는 글'이라는 글의 종류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글을 쓰기 위한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15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되고, 출처가 분명하고, 독자의 수준에 맞고, 글의 종류를 고려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주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6 서술형 제시된 대화를 통해 '정우'는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라는 주제로 '설명하는 글'을 쓸 것임을 알 수 있다.

17 개요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생성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구조화한 글의 뼈대를 말한다. 한편, 접속어나 지시어가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글을 쓴 후 고쳐쓰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참고 자료] 개요를 점검할 때 고려할 사항

- 글의 주제와 어긋나는 내용이 없는지 살핀다.
- 제목이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지 살핀다.
- 글의 내용을 제시하는 순서가 어색하지 않은지 살핀다.
-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었는지 살핀다.

18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가운데 – 1 – 나. 경제적 가치' 항목은 '가운데 – 3. 독도의 가치'의 하위 항목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19 이 글에는 국립 수산 과학원에서 독도 사진전을 개최할 것임을 안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독도에 한때 서식했다가 멸종한 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가)에서 독도 주변에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설명하고 있다.
③ (가)의 마지막 문장과 (라)에서 독도의 주변국과 그로 인한 독도의 위치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⑤ (나)에서 물고기를 포함하여 독도에 사는 희귀한 생물들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0 계획한 내용과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해야 하므로, 내용의 긴밀성보다 참신한 표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독도가 환경·생태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종 희귀종의 구체적인 이름을 예로 드는 등, 사례를 통해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가), (나), (라)에서 각각 독도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 환경·생태학적 가치, 위치적 가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③ (가)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낯선 과학 용어를 정의의 방법을 통해 풀이하고 있다.
④ (가), (다), (라) 문단은 첫 문장을 통해 해당 문단의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표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

- 예상되는 독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글쓴이 중심으로 된 내용을 독자 중심의 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독자가 더욱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 글을 통해 독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 독자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1 (가)의 중심 내용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 (나)의 중심 내용은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 (라)의 중심 내용은 '독도의 위치적 가치'로 (가), (나), (라) 모두 '독도의 가치'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독도에 살았던 강치'를 다룬 (다)가 이 글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단이다.

22 ㉤은 독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나)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독도의 위치적 가치'를 설명하는 (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 (가) 문단의 중심 내용이다.
② ㉡은 독도 주변의 바다가 조경 수역이기 때문에 어류의 먹이가 풍부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뒤의 내용에서 이 때문에 독도 주변에는 매 계절 어장이 형성되므로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독도의 가치라는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다.
③ ㉢은 독도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것으로,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가 적절하다.
④ ㉣은 앞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 '메탄 하이트레이트'라는 전문 용어의 뜻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에 적합한 내용이다.

23 〈보기〉의 '민희'는 (가)~(나)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을, '영우'는 (다)~(라)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을 예측하였다. '민희'와 '영우'는 공통적으로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

24 통일성 있게 글을 쓴 후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글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쓴 글을 평가할 때는 주제의 명료성, 표현의 정확성, 자료와 내용의 적절성, 글의 통일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설명하는 글의 주제는 다양하므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제재로 다루었는지의 여부는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25 서술형 (다)의 중심 내용은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로 독도의 환경이 특수하며, 그곳에 희귀한 생물들이 많이 살아서 독도가 환경·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라는 문장은 (다)의 중심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깨뜨리기에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삭제해야 할 문장을 바르게 찾아 썼다.	□
(다)의 중심 내용인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를 바르게 썼다.	□

26 ㉠은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람의 성격을 555개나 되는 단어로 정리하였다는 연구 사례이다. 이는 사람의 성격은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나)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처럼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성격을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게 만드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3. 재미있는 낱말 탐험

(1) 품사의 종류와 특성

내공 쌓기 ❶

73쪽	01 ③ 02 ① 03 ⑤ 04 ① 05 ④ 06 ⑤ 07 ㉡, 수식언 08 ①

01 품사란 기준에 따라 성질이 공통된 낱말을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②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는 '어절'이다.
④ 의미를 지니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는 '낱말'이다.
⑤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음운'이다.

02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문장 안에서 낱말의 형태가 변하는지와 변하지 않는지의 여부(형태), 문장에서 낱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기능), 그리고 문장에서 낱말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의미)의 총 세 가지이다.

03 관형사는 낱말을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체언은 주로 문장의 주체가 되는 기능을 한다.
② 용언은 주로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③ 독립언은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④ 수식언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04 '매우'는 부사로, 문장에서 활용할 수 없고 고정된 형태로만 사용되는 불변어이다.

오답 풀이 ②, ⑤ '달리다'와 '흔들다'는 동사로,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③, ④ '예쁘다'와 '기쁘다'는 형용사로,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05 '풍경'은 명사이고 문장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장의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체언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이에 해당한다. '무척'은 부사로, 수식언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⑤ '꽃'과 '설악산'은 명사로 체언이다.
②, ③ '그것'과 '당신'은 대명사로 체언이다.

06 '착하다', '아름답다'는 형용사이고, '훔치다'는 동사이다. 따라서 이 낱말들은 모두 용언이며,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체의 움직임, 상태, 성질을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07 **서술형**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는 명사이다. ㉠, ㉢, ㉣, ㉤은 모두 명사이고, ㉡은 뒤에 오는 체언 '나무'를 꾸며 주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속한다.

08 '벌써'는 동사 '물들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부사는 문장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꾸밈을 받는 말 바로 앞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내공 쌓기 ❷

75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④

01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해당되며 문장에서 주로 주체의 역할을 한다.

02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는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며, 문장에서 형태가 고정되어 쓰이는 불변어이다.
③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주로 체언 뒤에 붙어 쓰인다.
⑤ 명사의 종류로는 '사과', '자전거'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 명사와, '사랑', '희망'처럼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가 있다.

03 ㉠은 큰 나라에서 온 거만한 사신을, ㉡은 불가사리가 새겨진 크고 화려한 굴뚝을, ㉢은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연못가를 대신하여 나타낸다.

내공 기르기

'그'는 사람을 대신하는 말이고, '저것'은 사물을 대신하는 말이지. 또한 '여기'는 장소를 대신하는 말이야. 각각의 대명사가 쓰인 앞부분의 내용에서 사람, 사물, 장소를 찾아보면 대명사가 무슨 말을 대신하고 있는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

04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는 수사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제의 그가 아니다.'에는 수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삼', '오'는 모두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에 해당한다.
② '제일', '제이'는 모두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에 해당한다.
③ '둘', '하나'는 모두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에 해당한다.
⑤ '첫째', '둘째'는 모두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에 해당한다.

내공 쌓기 ❸

77쪽	01 ⑤ 02 ④ 03 ⑤ 04 (1) 움직임, (2) 상태나 성질 05 ④ 06 ②

01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낱말은 용언이다. 따라서 동사 '가다'와 형용사 '빠르다'가 묶인 ⑤가 정답이다.

02 제시된 문장의 '쓴다'와 '짧다'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서 주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이다.

오답 풀이 ①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것은 관형사나 부사와 같은 수식언이다.
②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은 독립언이다.
③ 문장의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체언이다.
⑤ 단어의 역할이 명확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은 관계언이다.

03 '새하얗게'의 기본형은 '새하얗다'이다. 기본형은 활용하는 단어에서 활용형의 기본이 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어간에 어미 '-다'를 붙이면 된다.

04 서술형 '심으셨다', '읽었다'의 기본형은 각각 '심다'와 '읽다'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한다. 한편 '가늘었다', '얇아서'의 기본형은 각각 '가늘다'와 '얇다'로,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05 '향기롭다'는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에 대한 설명이다.

06 '푸르다'는 형용사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빈칸에는 '바다'를 꾸미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푸른'이 어울린다. 두 번째 빈칸에는 '살아야겠다고'를 꾸미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푸르게'가 어울린다.

내공 쌓기 ④

79쪽	01 활용 02 ④ 03 ① 04 ② 05 ④ 06 '웃다'는 활용이 자연스러우므로 동사이고, '빠르다'는 활용이 어색하므로 형용사이다. 07 ② 08 ③

01 서술형 문장에서 낱말, 특히 동사와 형용사는 다른 품사와 달리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데, 이렇게 낱말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02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용언으로서, 문장에서 그 쓰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03 '아름답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⑤ '기다린다', '피었다', '마신다', '닦으셨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한다.

04 빈칸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와 구분되는 동사의 특징이어야 한다.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은 동사, 형용사의 공통된 특성이다.

오답 풀이 ①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달리 움직임이나 작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③ 청유형을 만드는 어미 '-자'를 붙여 활용할 때 활용이 어색하지 않으면 동사이다. 형용사는 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④ 명령형을 만드는 어미 '-어라/-아라'를 붙여 활용할 때 활용이 어색하지 않으면 동사이다. 형용사는 명령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는다/-ㄴ다'를 붙여 활용할 때 활용이 어색하지 않으면 동사이다. 형용사는 '-는다/-ㄴ다'와 결합할 수 없다.

내공 기르기

'아이, 좋아라!', '어머, 예뻐라!'에 쓰인 어미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가 아닌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라/-아라'야.

05 낱말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는다/-ㄴ다'를 붙여 활용하려면, 낱말이 동사여야만 한다. 따라서 형용사인 '맑다'는 '맑는다'로 활용하면 어색하다.

06 서술형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때에는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어미를 붙여 활용해 본다. 이때 활용이 자연스러우면 동사, 어색하면 형용사이다.

07 형용사 '건강하다'는 '-ㄴ 중'을 활용해 현재 진행의 의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쁘다' 역시 형용사로 명령의 의미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 '행복하다'는 형용사지만 보조 동사 '지다'를 붙여 쓰면 활용할 수 있다.

08 '깨끗하다'는 형용사이다. 설명에 따르면 용언을 문장 안에서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했다. '깨끗하다'를 '깨끗한', '깨끗하게', '깨끗하면' 등으로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깨끗하-'이므로, ㉠의 어간은 '깨끗-'이 아니라 '깨끗하-'이다.

내공 쌓기 ⑤

81쪽	01 ② 02 ② 03 ㉡, ㉥, ㉦ 04 ② 05 새 06 ④ 07 ③ 08 ②

01 수식언은 문장 안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로, 관형사와 부사가 수식언에 해당한다.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문장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용언과 서술격 조사 '이다'이다.

02 '모든'은 뒤에 오는 '학생들'을 꾸며 주는 관형사, '깜짝'은 뒤에 오는 '놀라셨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모두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말로 수식언에 속한다.

03 서술형 주로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 '어떤'은 명사 '가수'를, ㉥ '두'는 명사 '사람'을, ㉦ '옛'은 명사 '추억'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 '엉금엉금'은 동사 '기어간다'를, ㉢ '분명히'는 문장 전체를, ㉣ '아주'는 부사 '많이'를, ㉤ '많이'는 동사 '내렸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04 '한'은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① '나란히'는 동사 '걸어간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③ '가장'은 형용사 '크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 '무조건'은 형용사 '편안해야'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어제'는 동사 '산'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05 서술형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를 말한다. 제시된 문장에서 '새'는 뒤에 오는 명사 '책'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날마다'는 명사 '날'과 조사 '마다'로 이루어진 말이다.

06 동사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맡으며, 부사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부사는 문장에서 고정된 형태로 사용된다.
②, ③ 부사는 용언을 수식할 뿐 아니라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⑤ 부사는 다른 말을 꾸며 준다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관형사와 함께 수식언으로 분류된다.

07 '할머니께서는 헌 물건을 아끼신다.'에서 부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헌'은 명사인 '물건'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① '빨리', ② '무척', ④ '많이', '못', ⑤ '슬며시'가 부사에 해당한다.

08 '열심히'는 동사 '노력하며'를 꾸며 주는 부사로, 동사 '노력하며'는 용언이다.

오답 풀이 ① '열심히'는 부사로 관형사와 함께 수식언에 포함된다.
③ '열심히'는 부사로, 부사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④ '항상'이나 '꾸준히' 역시 자연스럽게 동사 '노력하며'를 꾸며 줄 수 있는 부사이므로, '열심히'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열심히'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라는 의미로 '노력하다'를 꾸며 주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내공 쌓기 ⑥

83쪽	01 ④ 02 ③ 03 조사, 관계 04 ④ 05 ③ 06 ⑤ 07 ④ 08 ②

01 밑줄 친 '는', '과', '을'은 모두 조사에 해당한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 조사는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앞말에 붙어서만 쓰인다.

오답 풀이 ① 조사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예외적으로 형태가 변하지만, 제시된 낱말 중에는 '이다'가 있지 않다.
② 체언 앞에 놓여서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이 문장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③ 조사는 부사나 용언 뒤에 붙어서 그 말의 뜻을 더해 줄 수도 있지만, 제시된 조사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둘 이상의 낱말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것은 '과'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참고 자료] 조사의 종류

종류	역할
격 조사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예 효주가 학교에 간다.
보조사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예 공부만 하지 말고 운동도 하렴.
접속 조사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조사 예 책과 연필을 샀다.

02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로 제시된 문장에서 조사의 위치가 바뀌면 그 앞에 붙은 말의 자격이 바뀌게 되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오답 풀이 ①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독립언인 감탄사뿐이며, 조사는 다른 말과 결합해서만 쓰일 수 있다.
② '까지'처럼 하나의 조사가 여러 가지 뜻을 갖는 경우도 있으나, 제시된 문장을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니다.
④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 문장에서 앞말의 쓰임이 달라지는 것이고, 위치에 따라 조사의 쓰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⑤ 조사를 생략할 경우 '정우 나라 부른다.'라는 문장이 되어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불린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문장의 뜻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03 서술형 '소년 소녀 좋아한다.'라는 문장에는 조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낱말들 간의 문법적인 관계를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좋아한다'라는 행위의 주체, 즉 누가 좋아하느냐와 대상, 즉 누구를 좋아하느냐를 알 수 없다.

04 조사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문장의 주체를 표시하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사이다.
② '를'은 문장의 목적어를 표시하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사이다.
③ '는'은 어떤 대상이 문장 속에서 화제임을 나타내거나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다.
⑤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다.

05 독립언은 문장에서 다른 말과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독립언이라고 부른다.

오답 풀이 ①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말은 '수식언'이다.
② 주로 주체의 역할을 하는 말은 '체언'이다.
④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말은 '용언'이다.
⑤ 주로 다른 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관계언'이다.

06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장의 뜻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의지 등을 나타내므로 불필요한 품사는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④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로,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언이라고 부른다.
②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우아', 부름을 나타내는 '여보', 대답을 나타내는 '네' 등이 감탄사에 해당한다.
③ 감탄사를 사용하면 대화 상황을 좀 더 매끄럽고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

07 '이런'과 '아'는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말, '여보세요'는 전화를 할 때 상대편을 부르는 말, '네'는 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하거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에 해당한다.

08 '가희야'는 명사 '가희'에 조사 '야'가 결합된 것으로 감탄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족집게 예상 문제

본문 84~89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② 05 ② 06 ②
07 ㉠: (큰 나라에서 온 거만한) 사신, ㉡: (불가사리가 새겨진 크고 화려한) 굴뚝 ㉢: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연못가 08 ② 09 ④
10 ② 11 ③ 12 ② 13 귀엽다, 살다 14 ⑤
15 피다, 주다, 잡다 / 높다, 맑다, 맛있다 16 ④ 17 ②
18 ① 19 ③ 20 ② 21 ⑤ 22 • 관형사: 옛, 모든, 어떤 • 부사: 그대로, 매우, 많이 23 ④ 24 ⑤ 25 ②
26 ③ 27 부사, (1) 너무, 너무나, 매우 등, (2) 정말, 아주, 진짜 등
28 ⑤ 29 ④ 30 하늘에 구름이 떠다닌다. 31 ③
32 ④ 33 ④ 34 ① 35 ④ 36 ② 37 ②
38 ⑤ 39 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40** ㉠: 형태 ㉡: 기능 ㉢: 의미 2단계 **41** '치우다'는 동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표현이 가능하다. 3단계 **42** '어떤'과 '가장'은 모두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수식언이다. '어떤'은 관형사로 체언을 수식하지만, '가장'은 부사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수식하는 품사이다.

01 '품사'는 기준에 따라 묶어 놓은 낱말의 무리이다. 낱말의 분류만으로 의미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묶어 놓은 낱말의 무리이다.
② '형태'를 분류 기준으로 하여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
③ '의미'를 분류 기준으로 하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⑤ '기능'을 분류 기준으로 하여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02 ㉠의 '기쁘다', '예쁘다'는 형용사이고 '달리다', '흔들리다'는 동사로 용언에 속하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의 '매우'는 부사이고, '설악산', '구름', '꽃'은 명사인데 부사와 명사는 모두 문장에서 고정된 형태로만 사용되는 불변어이다.

03 ㉠ '풍경'은 명사이고, ㉡ '정말'은 부사이다. ㉠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같은 기능을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로 교체할 수 있고, ㉡은 문장에서 형용사 '아름다웠다'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므로 수식언 중에서도 부사로 교체할 수 있다. ⑤의 '하늘'은 명사이고 '어머나'는 감탄사인데, 감탄사는 부사 대신 쓰일 수 없기에 답은 ⑤다.

오답 풀이 ①, ② '꽃'과 '구름'은 명사, '너무'와 '참'은 부사로 대신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③, ④ '당신'과 '이것'은 대명사, '진짜'와 '매우'는 부사로 대신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04 〈보기〉의 '걱정, 우산'은 명사, '우리, 그것'은 대명사, '셋, 서넛'은 수사로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체언은 주로 문장에서 주체의 역할을 하는 품사이다.

오답 풀이 ① 명사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수식언에 대한 설명이다.
④ 조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동사와 형용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5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은 '명사'이다. 명사는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등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 명사'와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 '우정'은 추상 명사에 해당한다.

06 형태가 변하지 않고, 문장에서 조사가 붙는 품사는 체언이다. 체언 중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가리킬 때 사용되는 낱말은 '인칭 대명사'이다. 인칭 대명사에는 '우리, 저희, 너희, 자네, 당신, 그녀, 그분, 누구' 등이 있다.

오답 풀이 '여기, 이것, 저기, 저것, 거기, 그것'은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기능을 하는 '지시 대명사'이고 '따름'은 의존 명사이다.

07 서술형 ㉠~㉢은 모두 앞부분에 나왔던 말을 대신하는 대명사이다. ㉠은 '사신'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은 '굴뚝'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은 '연못가'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08 대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이다. 또한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는 불변어,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는 체언에 속한다.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감탄사에 대한 설명이다.

09 ㉠~㉢은 모두 대명사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쓰일 수 있다.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일컫는 말로 대명사는 수사를 대신하여 쓰이지는 않는다.

10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낱말은 '수사'이다. '수사'와 '관형사'가 형태가 같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뒤에 있는 낱말을 수식하는 경우가 '관형사'이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다섯이다.'에서 '다섯'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로 쓰였지만, '고양이가 다섯 마리이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다섯'은 명사 '마리'를 꾸며 주는 관형사로 쓰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둘'이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낱말이 사용되었다.
③ '다섯'이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낱말이 사용되었다.
④ '하나'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낱말이 사용되었다.
⑤ '첫째', '둘째', '셋째'라는 순서를 나타내는 낱말이 사용되었다.

11 수사는 체언에 속하는데 체언은 문장의 몸, 즉 주체가 되는 자리에 주로 나타나는 말이다. 주체를 풀이해 주는 기능을 하는 말은 용언이다.

오답 풀이 ①, ④ '첫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낱말이고, '둘', '하나', '셋'은 수량을 나타내는 낱말이다.
② 밑줄 친 말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⑤ 수사는 체언에 속하는데,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거나 홀로 쓰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수사의 종류

양수사	수량을 나타내는 낱말
	• 고유어 양수사: 하나, 둘, 셋, 서너, 대여섯 등 • 한자어 양수사: 일(一), 이(二), 삼(三) 등
서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낱말
	• 고유어 서수사: 첫째, 둘째, 셋째, 서너째, 댓째 등 • 한자어 서수사: 제일(第一), 제이(第二), 제삼(第三) 등

12 ②에서 설명하는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의 의미를 더해 주는 것은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③ 용언은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④, ⑤ 용언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때, 모양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어미 '-다'가 결합한 용언의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한다.

13 **서술형**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형용사인 '귀여운'과 동사인 '살았다'이다.

내공 기르기

용언(用言)의 용(用)은 '쓰다'라는 뜻이야. 즉 '용언'은 쓰임에 따라 활용하는 말이라는 의미란다. 제시된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낱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용언을 찾으면 돼. 용언에는 형용사와 동사가 해당돼. 또한 기본형을 쓰라고 했으므로 용언의 어간에 '-다'를 붙인 형태로 만들면 돼.

14 용언을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나누고 있다.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활용 가능한 용언은 동사이며, 활용 불가능한 용언은 형용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주로 다른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이며,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관형사이다.

내공 기르기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 명령형은 용언에 '-어라/-아라'를 붙여서 형태가 변한 것을 말하고, 청유형은 용언에 '-자'를 붙여서 형태가 변한 것을 말해. 예를 들어 동사 '먹다'를 '먹어라'로 활용하면 명령형이 되고, '먹자'로 활용하면 청유형이 되는 것이지.

15 **서술형** 〈보기〉에 제시된 낱말들은 '피다, 주다, 잡다'는 동사, '높다, 맑다, 맛있다'는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

16 '예쁘다'는 형용사로, 현재형인 '-는/-ㄴ'을 붙여 활용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피다'와 '먹다'는 동사로, '-는다/-ㄴ다'를 붙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치우다'는 동사로, '-어라/-아라'를 붙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읽다'는 동사로, '-자'를 붙여 활용할 수 있다.

17 '달리다, 가다, 돕다'는 모두 동사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이다.

오답 풀이 ① 용언을 꾸며 주는 낱말은 부사이다.
③ 체언을 수식해 주는 낱말은 관형사이다.
④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은 형용사이다.
⑤ 다른 낱말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낱말은 감탄사이다.

18 '오다, 뛰다'는 동사로서 어미 '-ㄴ다'를 활용해 진행의 의미인 '온다, 뛴다'로 활용할 수 있지만, '슬프다'는 형용사로 진행의 의미인 '슬픈다'로 활용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⑤ '오다', '뛰다'는 동사이고, '슬프다'는 형용사이다.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모두 용언에 해당하며, 용언은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용언은 주로 주체를 서술한다.

19 '가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좋은', '시원한', '울적하다', '그립다'는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인 형용사이다.

20 '자다, 걷다, 흐르다, 연주하다'는 동사로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의 결합에 제한이 없으나, '싫다'는 형용사로 명령형(-어라/-아라)과 청유형(-자)을 쓸 수 없다.

21 부사는 용언이나 문장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사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22 **서술형**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꾸미면 '부사'이다. '옛'은 명사 '모습'을, '모든'은 명사 '문화재'를, '어떤'은 명사 '외국인'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그대로'는 동사 '간직하고'를, '매우'는 부사 '많이'를, '많이'는 동사 '찍고'를 꾸미는 부사이다.

23 '새'는 '집'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이며, '거의'는 '완성되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언으로서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여 의미를 구체적으로 만든다.

오답 풀이 ①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을 서술해 주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이다.
②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조사이다.
③ 주로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구실을 하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이다.
⑤ 주로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여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은 감탄사이다.

24 관형사는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말로, '못'은 뒤에 오는 '하겠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그'는 명사 '영화'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② '새'는 명사 '옷'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③ '이'는 명사 '친구'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④ '옛'은 명사 '친구'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25 '선생님이 그에게 발표를 시키셨다.'에서 '그'는 대명사로, 부사격 조사 '에게'와 결합한 것이다. 나머지 문장에서의 '그'는 관형사로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며 뒤에 오는 체언과 띄어 써야 한다.

26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 ③에서는 '화들짝'이라는 '별안간 호들갑스럽게 펄쩍 뛸 듯이 놀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가 사용되었다.

27 서술형 제시된 문장의 빈칸에 올 수 있는 단어는 '아주, 정말' 등의 부사로,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28 ⑤에서 '두'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고, '옛'은 명사 '추억'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깜짝'은 '놀라셨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② '엉금엉금'은 '기어간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③ '가장'은 '좋아하니'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 '분명히', '아주', '많이'는 모두 부사이다.

29 제시된 글에서 밑줄 친 '는', '과', '을'은 모두 조사로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인다.

오답 풀이 ① '이다'를 제외한 조사는 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불변어이다.
②, ⑤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문장 안에서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관계언으로 분류된다.
③ 앞말에 붙여서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품사를 가진 하나의 낱말로 인정된다. 그러나 조사가 주로 붙어 사용되는 품사는 용언이 아니라 체언이다.

30 서술형 제시된 문장에서는 조사가 적절하게 쓰이지 않아 문장이 어색하다.

31 밑줄 친 낱말들은 모두 감탄사이다. 감탄사는 불변어로, 문장에서 고정된 형태로만 사용된다.

32 밑줄 친 낱말의 품사는 감탄사이다. '시작!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야.'에서는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시작'에 느낌표가 붙어 마치 감탄사처럼 보이지만, '시작'의 품사는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② '얼싸'는 흥겨운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사이다.
③ '아서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함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⑤ '우아'는 뜻밖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는 감탄사이다.

33 감탄사는 '느낌이나 놀람',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낱말로, '얘, 아, 아이코, 응, 음'이 이에 해당한다.

34 제시된 문장에는 '참'(감탄사), '오늘'(명사), '너'(대명사), '에게'(조사), '줄'(동사), '물건'(명사), '이'(조사), '하나'(수사), '있어'(동사)가 사용되었으므로 명사는 모두 두 개이다.

오답 풀이 ② 명사(오늘, 물건), 대명사(너), 수사(하나)가 모두 사용되었다.
③ '줄, 있어'라는 가변어에 속하는 동사가 사용되었다.
④ 관형사와 부사가 수식언에 속하는데 둘 다 문장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⑤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는 '에게, 이'가 사용되었다.

35 ④의 '너무'는 동사 '후회하다'를 꾸미고 있는 부사이므로 알맞게 연결되었다. ①의 '좋아'는 형용사, ②의 '우리'는 대명사, ③의 '갔다'는 동사, ⑤의 '어머머'는 감탄사이다.

36 이 문장에 쓰인 품사는 다음과 같다. 와(감탄사), 하늘(명사), 이(조사), 정말(부사), 높고(형용사), 푸르구나(형용사).

37 ㉠ '사람', '머릿결'은 모두 명사로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체언에 해당한다. ㉡ '저', '매우'는 각각 관형사와 부사로,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에 해당한다. ㉢ '은', '이'는 조사로 주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에 해당한다. ㉣ '아'는 감탄사로, 다른 말과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에 해당한다. ㉤ '부드럽구나'는 형용사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에 해당한다.

38 '아끼다'의 품사는 동사인 반면, '아니다'와 '아득하다'의 품사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 '연필', '사랑', '무지개'는 명사이다.
② '아차', '아이코', '아무렴'은 감탄사이다.
③ '얇다', '가늘다', '즐겁다'는 형용사이다.
④ '아직', '결코', '아장아장'은 부사이다.

39 ⑤에서 위 문장의 '바로'는 동사 '전화하다'를 꾸미고 있고, 아래 문장의 '바로'는 '인격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의존 명사 '바로'는 '저 바로에 우리 학교가 있습니다.'처럼 조사가 결합하여 쓰인다.

오답 풀이 ① 위 문장의 '한'은 관형사이며, 아래 문장의 '하나'는 수사이다.
② 위 문장의 '그'는 대명사이며, 아래 문장의 '그'는 관형사이다.
③ 위 문장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며, 아래 문장의 '만큼'은 조사이다.
④ 위 문장의 '아니'는 부사이며, 아래 문장의 '아니'는 감탄사이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40** 품사는 문장에서 낱말의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뉘고,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뉜다. 또한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로 나뉜다. 따라서 ㉠, ㉡, ㉢의 분류 기준은 각각 '형태', '기능', '의미'이다.

평가 기준	확인
㉠의 분류 기준이 '형태'임을 밝혀 썼다.	□
㉡의 분류 기준이 '기능'임을 밝혀 썼다.	□
㉢의 분류 기준이 '의미'임을 밝혀 썼다.	□

2단계 **41** '치우다'는 동사로 '치운다', '치워라', '치우자'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표현이 가능하여 형용사와 구별된다.

평가 기준	확인
'치우다'의 품사가 동사임을 썼다.	□
동사가 형태가 변하는 특성이 있음을 썼다.	□
동사가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썼다.	□

3단계 **42** ㉠ '어떤'은 뒤에 오는 명사 '가수'를 수식하는 관형사이고, ㉡은 '좋아하니'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모두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관형사는 체언을, 부사는 용언과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과 ㉡의 공통점으로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수식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
㉠과 ㉡의 차이점으로 각각 꾸며 주는 품사가 다르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

(2) 어휘의 체계와 양상

내공 쌓기 ❶

93쪽 | **01** 고유어 **02** ③ **03** ③ **04** ②

01 서술형 말의 뿌리, 즉 어종에 따라 어휘를 분류할 때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을 고유어라고 한다.

02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며 '지우개', '나물'이 이에 해당된다.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로, '두유(豆乳)', '체육복(體育服)'이 해당된다.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뜻하며 '볼펜(ball pen)'이 이에 해당된다.

03 '아이스크림(ice cream)', '초콜릿(chocolate)', '티셔츠(T－shirt)'는 모두 외래어이다.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한자어에 대한 설명이다.
②, ④, ⑤ 고유어에 대한 설명이다.

04 영어로는 'rice' 한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고유어에서는 각각 '벼', '쌀', '밥'으로 세분화하여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고유어에는 농사와 관련된 말이 많이 발달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였으며, 쌀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가 말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공 쌓기 ❷

95쪽 | **01** ④ **02** ② **03** ④ **04** 외래어 **05** ② **06** ㉣, 한자어 **07** ④

01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그 의미를 대신 나타내 줄 우리말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말처럼 사용된다.

02 (가)는 한자어, (나)는 고유어이다.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뜻이 구체적인 경우가 많아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뿌리는 '한자'이며, (나)의 뿌리는 본디부터 있던 '우리말'이다.
③ 우리 민족의 문화는 고유어인 (나)에 더 잘 담겨 있다.
④ (가)와 (나)는 각기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로 세대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
⑤ 고유어는 하나의 낱말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 비해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분화된 뜻을 지니고 있다. 한자어인 (가)가 고유어인 (나)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03 ㉠은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라는 뜻의 '의향(意向)'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은 '좋게 여기는 감정'이라는 뜻의 '호감(好感)'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뜻의 '심정(心情)'으로 교체할 수 있다.

04 서술형 〈보기〉에서 '구두'와 '빵'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우리말이지만, 그 말의 뿌리는 외국어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사용됨을 알 수 있다.

05 둘 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라도, '애플(apple)'과 같은 말은 고유어로 쉽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굳이 우리말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패션모델(fashion model)'처럼 고유어로 대체하기 어려운 말은 우리말처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6 서술형 제시된 글에 쓰인 '시간(時間)'은 '어떤 일을 하기로 정하여진 동안'이라는 뜻을 지닌 한자어이다.

오답 풀이 ㉠, ㉡, ㉢, ㉤ '디자이너(designer)', '세미나(seminar)', 택시(taxi)', '망토(manteau)'는 모두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외래어이다.

07 한자어와 외래어는 고유어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말 어휘의 범주를 넓혀 준다. 이처럼 한자어와 외래어는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공통점이 있다.

내공 쌓기 ❸

97쪽 | **01** ④ **02** 지역 **03** ② **04** ① **05** ② **06** ③ **07** ⑤

01 '1－(1)'의 그림으로 보아, 지역 방언이 생겨난 이유는 지역적으로 격리된 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02 서술형 '나무'라는 표준어가 지역별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03 '매우'는 표준어이며, '겁나게'는 전라와 충남 지역에서 쓰이는 '매우'의 방언이다.

04 의미가 매우 정밀해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 쓰기 어려운 것은 사회 방언 중에서 전문어의 특성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친근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③, ④ 지역 방언은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⑤ 지역 방언에는 우리 옛말의 자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지역 방언 연구를 통해 우리 국어의 역사를 탐구할 수 있다.

05 ㉮에서는 방송 중이라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회자와 출연자가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는 방송 후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비공식적 상황에서 사회자와 출연자가 친근하게 지역 방언으로 대화하고 있다.

06 ㉯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대화하면 같은 지역 사람이 같은 말을 사용한다는 유대감과 그로 인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07 A는 문학 작품을 표준어로 쓴 것이고, B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바꿔 쓴 것이다. 지역 방언은 그 지역 특유의 정서를 담고 있으므로, 지역 방언을 살려 작품을 쓰면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잘 담아내어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를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내공 쌓기 ④

99쪽 | **01** ③ **02** ① **03** 은어 **04** ④

01 사회 방언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을 뜻하는데, 이때 사회 방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세대, 직업 등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은 '지역 방언'이다.

02 '레가토', '트리플렛', '싱커페이션', '알라 브레베', '세뇨' 등의 낱말은 음악 분야의 전문적인 단어이다. 사회 방언의 일종인 전문어는 뜻이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으며, 전문적인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부분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으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인들과 소통할 때는 전문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로 풀어 사용해야 한다.

03 서술형 사회 방언 중, 은어는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사용하는 말을 뜻한다. 비밀 유지의 기능이 있고 외부에 알려지면 새로운 말로 변경되는 특성이 있다.

[참고 자료] 은어의 문제점

- 청소년의 은어는 비속어의 느낌이 강하고 일상어처럼 사용됨.
- 그 뜻을 모르면 조직 내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됨.
- 은어를 쓰지 않는 다른 집단이나 세대와의 의사소통을 방해함.

04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로, 비속어 혹은 비어라고도 한다. 가까운 사람끼리는 속어를 친근감의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말 자체에 공격성이 있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쉬우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오답 풀이 ㄱ. 지역 방언에 대한 설명이다.
ㄷ. 은어에 대한 설명이다.

족집게 실전 예상 문제

본문 100~103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④ **05** ③ **06** ① **07** ④ **08** ③ **09** 지역 방언, 작품이 배경으로 하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잘 담아내어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를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한다. **10** ⑤ **11** ⑤ **12** ③ **13** ② **14** ⑤ **15** 속어는 비밀 유지의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은어와 다르다. **16** ⑤ **17** ⑤ **18** 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9** ㉠ 방언, ㉡ 지역 방언, ㉢ 사회 방언 2단계 **20** 어종에 따른 분류, ㄱ은 고유어, ㄴ은 한자어, ㄷ은 외래어이다. 3단계 **21** 자료의 '파란', '푸르스름한', '퍼렇게'를 보니, 고유어는 색을 정도나 느낌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색채어가 발달하였다.

01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는 기준은 '어종(말의 뿌리)'이지 형성 시기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어휘는 낱말이 모여 이루어진 집합, 총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②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다.
③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④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다.

02 선지에서 고유어는 '김', '나물', '치마'이다. '냉면(冷麵)', '필통(筆筒)', '두유(豆乳)', '체육복(體育服)'은 한자어이며, '티셔츠(T-shirt)', '초콜릿(chocolate)', '아이스크림(ice cream)'은 모두 외래어이다.

03 '수선(修繕)하다'는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치다.'라는 뜻이고, '수리(修理)하다'는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다.'라는 뜻으로 둘 다 한자어이다.

내공 기르기

고유어와 한자어는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끼리 대응시킬 수 있어. 이때 고유어는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하는 반면에, 한자어는 구체적인 의미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고유어에 여러 개의 한자어가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

04 고유어 '마음'은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라는 뜻의 '의향(意向)'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뜻의 '심정(心情)'과도 대응한다. 이를 통해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구체적이고 분화된 뜻이 있으며, 비교적 의미가 포괄적인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05 〈보기〉의 밑줄 친 낱말들은 모두 외래어이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말처럼 사용된다.

06 외래어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말로서, 우리말 어휘를 보완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외래어의 장점은 인정하되, 최대한 우리말로 바꿔 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07 제시된 낱말들은 모두 외래어이다. '볼펜(ball pen)', '버스(bus)', '커피(coffee)', '뉴스(news)'는 모두 외래어이지만, '추측(推測)'은 한자어이다.

08 하나의 의미를 지역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지역 방언의 양상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지역 방언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해당 지역 사람들이 고유의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09 서술형 〈보기〉에 쓰인 방언은 지역 방언이다. 지역 방언은 그 지역 특유의 정서를 담고 있으므로, 방언을 살려 작품을 쓰면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잘 담아내어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를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에 지역 방언이 사용되었음을 서술하였다.	□
지역 방언을 문학 작품에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서술하였다.	□

10 (가)는 방송 중이라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나)는 방송 후 대기실에서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끼리 친근하게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는 비공식적인 상황이다.

11 (나)는 비공식적 상황에서 '사회자'와 '출연자'가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앞서 방송 중이라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나)와 달리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서로 친근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비공식적 상황에서까지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 밑줄 친 낱말은 모두 음악 분야의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는 말로, 주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한다.

오답 풀이 ① 전문어는 남성, 여성 상관없이 쓸 수 있다.
②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말은 '지역 방언'이다.
④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말로 인정되는 말은 '외래어'이다.
⑤ 청소년들이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세대'에 따라 생기는 사회 방언 때문이다.

13 전문어는 뜻이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때에는 전문적인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다.

오답 풀이 ① 지역이나 사회적 요인 때문에 분화하는 어휘들은 모두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하지만, 어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어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없다.
③ 전문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과 의사소통할 때에는 전문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풀이해서 사용해야 한다.
④ 기발하고 신선한 느낌으로 듣는 이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어휘는 '유행어'이다.
⑤ 사용자들끼리 친근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지역 방언이다.

14 이 글에서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자유롭게 대화할 때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속어의 효과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는 속어의 효과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무림', '도자', '산개', '데팽이' 등 은어의 예가 나온다.
② 속어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속어 사용의 단점이 나온다.
③ 은어와 속어의 개념을 각각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다.
④ 은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다.

15 서술형 두 번째 문단에서 속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속어의 뜻을 밝히고 앞서 설명한 은어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한 후, 속어를 사용하는 까닭과 속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까닭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16 제시된 글은 전문어에 대한 설명이다. 전문어와 은어의 공통점은 뜻을 모르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뜻이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은 것은 전문어만의 특징이다.
② 전문어를 사용하면 경우에 따라 비밀 유지가 되기도 하지만, 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지역적인 요인으로 분화된 말은 지역 방언이다.
④ 대부분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는 것은 전문어의 특징이다.

17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우리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손상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외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은 은어이다.
② 말 자체에 공격성이 강해서 언어 습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속어이다.
③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전문어이다.
④ 세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막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어휘는 세대에 따라 분화된 사회 방언이다.

18 '내비게이션'은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 주어 자동차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외래어로 '길

도우미'나 '길안내기'로 순화할 수 있다. '로드뷰'는 '거리 보기'로 순화할 수 있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19** ㉠에 들어갈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달라진 말은 '방언'이라고 한다. 방언의 종류로는 지역에 따라 분화된 ㉡ '지역 방언'과 사회적 요인에 따라 분화된 ㉢ '사회 방언'이 있다.

2단계 **20** ㄱ의 '눈썹', '꽃샘', '하늘'은 고유어이며, ㄴ의 '친구(親舊)', '자유(自由)', '언어(言語)'는 한자어, ㄷ의 '버스(bus)', '커피(coffee)', '볼펜(ball pen)'은 외래어이다. 따라서 어휘를 분류한 기준은 어종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어휘의 분류 기준이 어종임을 서술하였다.	□
ㄱ, ㄴ, ㄷ에 해당하는 어휘의 종류를 알맞게 서술하였다.	□

3단계 **21** 〈보기〉의 자료에는 공통적으로 고유어로 된 색채어가 사용되고 있다. '푸르다'를 '파란', '푸르스름한', '퍼렇게'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한다.

평가 기준	확인
색채어가 발달한 것을 고유어의 특성으로 서술하였다.	□
'자료의 ~을/를 보니, 고유어는 ~ 이/가 발달하였다.'라는 형식에 맞추어 서술하였다.	□

본문 104~109쪽

대단원 평가

01 ② **02** ⑤ **03** ② **04** ① **05** ③
06 ⑤ **07** '풍경'은 명사, '둘'은 수사, '이'는 대명사로, 주로 문장의 주체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08** ③
09 ④ **10** 명령형, 청유형 **11** ⑤ **12** ②
13 ② **14** ㉠: 꾸며 주는(수식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 관형사, ㉢: 부사 **15** ② **16** ② **17** ④
18 ④ **19** ④ **20** ④ **21** ⑤ **22** ③
23 ④ **24** ① **25**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분화된 뜻을 지니고 있어서 고유어를 보완한다. **26** ⑤ **27** ①
28 ③ **29** ⑤ **30** ③ **31** ③ **32** ①
33 ⑤ **34** ③ **35** ⑤ **36** 네. 이번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이 오르면 삼촌이 생일 선물로 구두를 사 준다고 했거든요.

01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의 기준에 따라 묶어 놓은 낱말의 무리이다. 문장에서 단어가 어떤 역할(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의 다섯 개 품사로 분류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품사는 문장에서 낱말의 형태가 변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분류 기준과 품사를 알면 낱말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어 낱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③ 품사는 문장에서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9개 품사로 나눌 수 있다.

02 국어의 아홉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이다. 의문사는 품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의문사

개념	의문의 초점이 되는 사물이나 사태를 지시하는 말
예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어떻게', '얼마' 등

03 '나'는 대명사이고, '첫째'는 수사이며, '우정'은 명사이다. 품사의 분류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 세 가지인데 '나', '첫째', '우정'은 모두 문장에서 형태가 고정되어 쓰이는 불변어이고, 문장에서의 기능도 체언으로서 동일하므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04 〈보기〉에 제시된 낱말들의 품사는 모두 명사이다.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05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관계언, 즉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④ 대명사는 주로 앞에서 언급된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이다.
② 대명사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고정되어 사용되는 불변어이다.
⑤ 사람을 가리키는지,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대명사의 종류

인칭 대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예 나, 저, 우리, 저희, 너, 너희 등
지시 대명사	•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예 이것, 그것, 저것 등 •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예 여기, 거기, 저기 등

06 밑줄 친 낱말은 모두 수사이다. 그중 '둘',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고, '첫째',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다. 수사는 체언에 속하며 문장에서 주로 주체의 역할을 하고,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수식언이다.

07 서술형 '풍경'은 명사, '둘'은 수사, '이'는 대명사로 명사, 대명사, 수사는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체언은 주로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기능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각각의 품사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주로 문장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서술하였다.	□

08 ③ '심으셨다'의 기본형은 '심다'이며 품사는 동사이다. ①, ②, ④, ⑤ '맛있는', '가늘었다', '아름답게', '새하얗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09 ⓐ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인 동사이며, ⓑ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인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 동사와 형용사는 둘 다 문장에서 활용하여 형태가 변한다.
② 동사와 형용사는 둘 다 문장에서 홀로 쓰인다.
③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것은 수식언의 기능이며, 동사와 형용사는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⑤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은 감탄사이다.

10 서술형 동사와 형용사는 둘 다 용언으로, 문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사의 경우 활용이 자유롭지만, 형용사의 경우 활용할 때 일부 제한이 있다. 즉,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는다/-ㄴ다'와 결합하는 현재형, '-어라/-아라'와 결합하는 명령형, '-자'와 결합하는 청유형의 표현에 제약이 있다.

11 '부르다', '즐겁다'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제시된 자료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부르다', '즐겁다'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에서 '-다'가 결합한 기본형일 뿐, 이 둘은 문장에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어로 분류한다.

12 '어떤'은 뒤에 오는 '가수'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엉금엉금'은 동사 '기어간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따라서 이 둘의 공통점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며, 이 둘을 묶어 수식언으로 분류한다.

오답 풀이 ① '감탄사'에 대한 설명이다.
③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용언'에 대한 설명이다.
⑤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13 ②는 '학원(명사)에서(조사) 알게(동사) 된(동사) 그(대명사)는(조사) 이웃(명사)이었다(조사).'처럼 수식언인 관형사나 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일곱째'라는 관형사가 쓰였다.
③ 부사 '못'이 쓰였다.
④ '분명히, 아주, 많이'라는 부사가 쓰였다.
⑤ '두, 옛'의 관형사가 쓰였다.

14 서술형 '헌', '일찍', '모든', '정말로'는 모두 수식언이다.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으며 꾸며 주는 대상이 체언이면 관형사,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주로 꾸미면 부사로 나눌 수 있다.

15 제시된 문장에 사용된 조사는 '는', '를', '으로'이다. '-려고'는 동사 '피하다'가 활용하면서 붙은 어미이다. '밑', '소나기'는 명사이며, '우리'는 대명사이다.

16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 바뀐 문장에서는 조사 '까지'가 명사인 '오빠' 뒤에 붙어서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이라는 뜻을 더해 주고 있다.

17 '같이'는 부사로, '이'가 따로 나뉘지 않는 하나의 낱말이다. '같이'는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8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는 감탄사이다. 감탄사는 독립언이므로 문장에서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에 변화가 없다.

오답 풀이 ①의 '여보세요'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②와 ⑤의 '아'와 '이런'은 놀람 등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③의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내공 기르기

감탄사를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탄사를 생략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비교해 보는 거야. 두 문장 사이에 의미 차이가 별로 없을 때, 생략한 성분은 독립언, 즉 감탄사일 가능성이 크지.

19 ㉠은 명사, ㉡은 관형사, ㉢은 조사, ㉣은 감탄사, ㉤은 형용사이다. '일찍, 갑자기, 그래서'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부사에 해당하는 예이다. 감탄사의 예로는 '우아', '아쭈', '네' 등을 들 수 있다.

20 제시된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인 관형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문장에 쓰인 품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친구'(명사), '는'(조사), '시험'(명사), '문제'(명사), '를'(조사), '잘'(부사), '풀었는데'(동사), '나'(대명사), '는'(조사), '실수'(명사), '를'(조사), '많이'(부사), '하여'(동사), '아쉬웠다'(형용사).

21 '뭐'는 '무어'의 준말로 감탄사에 해당한다. 감탄사는 다른 말과는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는 동사인 '먹었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부사에 해당한다.
② '혜주'와 '귤'은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에 해당하므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③ '가'와 '을'은 다른 말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 주는 조사에 해당한다.
④ '먹었어'는 주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에 해당하며, 기본형인 '먹다'가 활용된 말이다.

22 '옛 친구'의 '옛'은 관형사로, 문장에서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을 꾸며 준다.

오답 풀이 ① '멋진'은 형용사이다.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 주는 것은 부사이다.
② '어머'는 감탄사이다.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조사이다.
④ '우리'는 대명사이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명사이다.
⑤ '자다'는 동사이다. 동사는 '-는다/-ㄴ다'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는다/-ㄴ다'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없는 것은 형용사이다.

23 어종에 따라서 낱말을 분류하면,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인 '고유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인 '한자어',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사회 방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류한 것이다.
② 방언의 요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③ 신어는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를 뜻한다. 유행어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절로 신어의 일종이다. 순화어는 불순한 요소를 없애고 깨끗하고 바르게 다듬은 말을 뜻한다.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 따위를 알기 쉽고 규범적인 상태로 또는 고유어로 순화한 말을 이른다.
⑤ 낱말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24 제시된 글에서는 고유어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잘 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벼', '쌀', '밥'이라는 낱말을 보면 우리나라가 농사를 중시하는 농경 사회였고, 쌀을 주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쌀과 관련한 말이 많이 발달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25 **서술형** 제시된 문장에는 '마음'이라는 하나의 고유어에 '의향(意向)', '호감(好感)', '심정(心情)'이라는 여러 한자어가 대응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한자어가 고유어에 비해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낱말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평가 기준	확인
한자어가 구체적이고 분화된 뜻을 지니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
고유어와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

26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여러 말들 중에서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는 말만을 지칭하며, 외래어를 받아들여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말로 쉽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 제시된 낱말들은 표준어 '누룽지'와 대응을 이루는 지역 방언들이다. '밥', '쌀', '벼'는 쌀의 여러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지, 지역에 따라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 방언이라 할 수 없다.

28 〈보기〉는 과거 지역 방언을 표준어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던 것과는 달리 지역 방언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존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방언이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세터, 스파이크, 시간차 공격'은 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포볼, 스트라이크, 노히트 노런'은 야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는 직업에 따라 분화된 전문어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방언은 성별, 세대, 직업, 계층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생기게 된다.

30 ㉠과 ㉣은 외래어이며, ㉡과 ㉤은 각각 컴퓨터와 음악 분야의 전문어이고, ㉢은 한자어이다. ㉡과 ㉤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대에 의해 분화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 마치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로, 고유어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④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가)의 '상담원'은 일반인에게 전문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⑤ '작곡가(作曲家)'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31 ⓐ는 (가)에서 '상담원'이 사용한 전문어를 지칭한다. 집단의 외부에 알려지면 새로운 말로 교체되는 것은 '은어'이다.

오답 풀이 ①, ⑤ (가)에서 '상담원'은 일반인인 고객이 알아듣기 어려운 컴퓨터 분야의 전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문제를 빚고 있다. 전문어는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고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의사소통할 때에는 쉽게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②, ④ 전문어는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이는 말로, 뜻이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어 전문적인 작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돕는다.

32 이 글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속어는 비밀 유지의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은어와 다르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를 통해 은어와 속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33 은어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정 집단의 구성원끼리만 사용하는 말이므로, 은어 사용이 대화의 분위기를 재미있게 이끌고 상대를 배려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4 세계화, 국제화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말이 유입되고, 우리말로 대체할 수 없는 말들이 기존의 말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며 우리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단, 지나친 외래어 사용은 우리말의 정체성과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위협하므로,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경계해야 한다.

35 '손녀'는 '할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자신들 또래에서만 사용하는 줄인 말인 '인강(인터넷 강의)', '열공(열심히 공부함)', '생선(생일 선물)'을 쓰고 있다. '할아버지'가 '손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둘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6 **서술형**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가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손녀'가 자신과 다른 세대인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 또래만 알아 듣는 말 대신, 두루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손녀'가 이전에 사용했던 줄인 말을 모두 표준어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
원래의 문장에서 어휘만 바꾸어 서술하였다.	□

4. 갈등을 넘어 소통으로

(1) 갈등하는 삶

내공 쌓기 ❶

115쪽	01 ① 02 ⑤ 03 ① 04 ③

01 소설의 구성 단계 중 발단 부분에서는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난다. 이 소설에서도 주인공인 '수남'에 대한 소개와 '청계천 세운 상가'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다.

02 '수남'이 일하는 가게에 주로 오는 손님들은 전공들이며, 당시에는 전공들이 공부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남'이 지식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것은 아니다.

03 전화 통화이므로 알밤을 맞을 리 없는데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호령에 고개를 움츠리는 '수남'의 모습에서 '수남'이 순진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4 '부드러운 알밤'은 '수남'이 일이 익숙해진 후에도 단골손님들에게 심심찮게 얻어먹는 알밤으로, 사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남'에게 애정 표시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수남'의 실수에 대한 꾸지람의 표시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수남이는 심심찮게 까닭도 없는 알밤을 얻어먹는다. 이 거친 사내들은 그런 짓궂은 방법으로 수남이를 귀여워하는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그러니까 수남이는 그만큼 인기 있는 점원인 셈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수남이에게 알밤을 먹이는 걸 들키기만 하면 단박 불호령이 내린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주먹과 팔짓만 허풍스럽게 컸지, 아주 부드러운 알밤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내공 쌓기 ❷

117쪽	01 ④ 02 ① 03 학교에 다니고 싶은 소망 / 공부를 하고 싶은 소망 04 ③

01 '그런 소리를 자기를 위해 해 주는 영감님을 위해서라면 뼛골이 부러지게 일을 한들 눈곱만큼도 억울할 것이 없을 것 같다.'로 보아 '수남'은 '주인 영감'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에 고마워하고 있으며, '주인 영감'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주인 영감'이 '수남'에게 아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③ '그래도 수남이는 혹사당하고 있다는 억울한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다.'를 통해 '수남'은 자신이 혹사당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으며, 따라서 '주인 영감'에게도 불만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점원이 적어도 세 명은 있어야 해낼 가게 일을 혼자서 해내자니 여간 벅찬 것이 아니다.'를 통해 '수남'은 '주인 영감'이 시킨 많은 일들을 벅차 하면서도 혼자서 해내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⑤ '맨손으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와서 거지도 안 되고 깡패도 안 되고 이런 어엿한 가게의 점원이 된 것만도 수남이로서는 눈부신 성공인데'를 통해 '수남'이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주인 영감'은 겉으로는 '수남'을 위하는 척 하지만, '주인 영감'의 여러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실제로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직원을 더 두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3 서술형 '수남'이 고등학생만 보면 심장이 짜릿짜릿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수남'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밀을 '주인 영감님'은 알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소망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학교' 또는 '공부'라는 낱말을 넣어 바르게 서술하였다.	□

04 ⓐ, ⓑ, ⓓ, ⓔ는 공부를 하고 싶은 '수남'의 열망이 표현된 구절이다. 그러나 ⓒ는 '주인 영감'이 '수남'의 시험 시기를 잘못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는 '주인 영감'이 '수남'의 소망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내공 기르기

'주인 영감'은 겉으로는 '수남'이 야학이라도 일류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수남'의 꿈을 지지하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수남'이 언제 시험을 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지. 이로 보아 '주인 영감'은 실제로는 '수남'의 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

내공 쌓기 ❸

119쪽	01 ② 02 ① 03 육친애 04 ③ 05 ②

01 '발단 – 8'에서 '수남'이 일을 마치고 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열한 시나 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수남'이 제대로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꿀같이 단 새벽잠'이라는 구절로 볼 때, '수남'은 새벽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졸음을 참아 가며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수남이의 부지런함은 이 근처에서도 평판이 자자했다.'로 볼 때, '수남'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근면하다고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남'의 장사 수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④ '주인 영감님은 ~ 손으로 수남이의 머리를 더듬었다. 그러나 알밤을 먹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로 볼 때, '주인 영감'은 '수남'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 알밤을 먹이지 않는다.

⑤ 전선 도매집 간판은 세찬 바람에 떨어져 지나가던 아가씨에게 부딪히고, 이에 아가씨가 다치게 된다.

02 '수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가게를 청소하고 물건까지 진열해 두면, 그제야 '주인 영감'이 나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수남'을 칭찬해 준다. '수남'은 이러한 '주인 영감'의 행동에서 육친애를 느끼고 '주인 영감'에게 계속 칭찬받기 위해 남보다 일찍 일어나 부지런하게 일한다.

03 서술형 '육친애'란 '부모 형제와 같이 혈족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애정 또는 그와 같은 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남'은 '주인 영감'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느낀다.

04 '전개 – 1'에서 '바람'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길한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한다. '전개 – 2'에서는 바람 부는 날 골목에서 전선 도매집 아크릴 간판이 떨어져 아가씨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05 ㉡은 열심히 일함으로써 '주인 영감'에게 보답하기 위한 '수남'의 행동이다. '수남'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새없이 일하고 있으므로 '수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밤에 더 오래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밤 열한 시 경부터라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수남'의 열의를 짐작할 수 있다.
③ '수남'은 아직 부모에게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 소년이지만, 가족과 떨어져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는 이런 '수남'에 대한 서술자의 연민이 담겨 있다.
④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리고, 시간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⑤ 다친 아가씨보다 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하는 '전선 도매집 주인아저씨'를 동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물질 만능주의적 세태를 알 수 있다.

내공 쌓기 4

121쪽 | 01 ① 02 ① 03 ②

01 '수남'은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며 자신에게도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을 하며 불안해하고, 흉흉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손님도 적게 오는 것에 울적해한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의 시골 풍경을 아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며 고독해한다.

02 도시 사람들은 '바람'을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바람'이 삶의 깨달음을 주는 존재라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03 '수남'은 평소와 다르게 '주인 영감'의 말을 고깝게 듣지만 이 말을 통해 '주인 영감'의 부도덕한 면을 파악한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따라 울적하고 불안한 마음에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꼭 네깐 놈 다칠 게 걱정이 아니라 나 손해 볼 게 겁난다는 소리로 들린다.'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볼까 염려하는 '주인 영감'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오늘은 바람이 유난해서 조심하느라 형광 램프 상자를 밧줄로 꼼꼼히 묶는다. 주인 영감님까지 묶는 걸 거들어 주면서'를 통해 '주인 영감'이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수남이는 보통 때 같으면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신바람 나게, 그리고 붙임성 있게 외치고는 방긋 웃어 보이고 나서야 페달을 밟고 씽 달렸을 터인데, 오늘은 왠지 그래지지가 않는다. 아무 말 안 하고 자전거를 무거운 듯이 질질 끌다가 뭉기적 올라타면서 느릿느릿 페달을 젓는다.'를 통해 '수남'이 평소와는 달리 '주인 영감'에게 친밀함을 보이지 않고 시큰둥하게 대함을 알 수 있다.

내공 쌓기 5

123쪽 | 01 ② 02 ④ 03 ② 04 ②

01 제시된 부분에는 돈을 받아 내려는 '수남'과 돈을 주지 않으려는 '××상회 주인'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즉, 인물과 다른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대립하며 발생하는 개인과 개인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참고 자료] 갈등의 종류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 사이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대립하여 발생하는 갈등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	인물이 그가 속한 사회의 관습이나 제도로 인해 겪는 갈등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	인물이 자연 재해를 겪거나 자연에 도전하면서 겪는 갈등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때문에 겪는 갈등

02 '수남'은 장사꾼들이 금고에 돈을 수북이 넣어 두고도 돈이 없는 척하며 돈을 내주려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장사꾼들의 생리에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03 '××상회 주인'은 돈이 있는데도 바로 주지 않고 장사가 안 된다며 딴청을 피우는 것이지, 장사가 안되는 이유를 '수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 손님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는 것으로 볼 때 '××상회 주인'의 말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럴 때 수남이는 이 세상에 장사꾼처럼 징그러운 족속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나서 한숨이 절로 난다.'를 통해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장사꾼에 대한 '수남'의 부정적 인식을 알 수 있다.
③, ④ '저런 수에 넘어가 호락호락 물러가면 주인 영감님에게 야단맞는 것도 맞는 거려니와, 앞으로 열 번도 넘게 헛걸음을 해야 수금을 끝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를 통해 '수남'이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갖은 핑계를 대며 버티는 '××상회 주인'의 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에 넘어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장사 더럽게 안된다는 주인 말과는 달리 손님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린다. 정말로 가게는 조그맣지만 길 목이 아주 좋다.'를 통해 '××상회 주인'이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장사가 안된다는 핑계를 대었음을 알 수 있다.

04 장사꾼의 수를 경멸하던 '수남' 역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은행 막을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줄 때까지 가게에 버티고 서서 물건 대금만큼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손님들이 주는 돈까지 계산하고 있다. 이로 보아 '수남'도 물질을 중시하는 도시 생활에 물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수남'은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물건 대금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이를 탐욕스럽다고 볼 수 없다.
③ '수남'이 버티고 서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나 암산하고 있는 것은, 계산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물건 대금만큼 돈이 들어오면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이다.
④ '수남'이 '××상회 주인'의 수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버티고 서서 돈을 받으려 하고 있지만, 이는 장사꾼의 수를 알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일 뿐, 자신 이외에 아무도 믿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수남'은 '××상회 주인'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은행을 막는다는 것의 뜻도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은행을 막는다는 것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내공 쌓기 ⑥

125쪽	**01** ⑤ **02** '수남'의 자전거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신사'의 차에 흠집을 냈다. **03** ② **04** ⑤

01 본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신사'가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생채기를 찾기 위해 차체를 면밀히 살피고, 차에 생긴 흠집을 찾고 좋아하며 팔짝팔짝 뛰는 것을 통해 '신사'의 경박한 성격을 알 수 있다.
②, ④ 어린 소년인 '수남'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을 통해 '신사'의 냉정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③ 자신의 차가 고급 차임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신사'의 거만한 성격을 알 수 있다.

02 **서술형** 바람이 세차게 불어 '수남'의 자전거가 쓰러졌고, 그때 '수남'의 자전거가 '신사'의 차 쪽으로 쓰러지면서 차에 흠집을 내게 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수남'은 그냥 가려고 한 것이고, '신사'는 '수남'이 도망을 가는 것이라 생각하여 '수남'을 붙잡은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자전거' 때문의 '차'에 흠집이 났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3 '수남'은 자신의 자전거가 '신사'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과 억울함에 눈물이 솟구쳤다. '수남'이 우는 모습을 보고 '신사'의 목청이 다분히 누그러지며 목소리에 연민이 담기자, 이를 재빨리 알아차린 '수남'은 '신사'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소리까지 내어 울고 있다.

04 오천 원이란 금액은 어린 '수남'에게는 너무나 큰돈이기 때문에 '수남'은 너무 놀라 울음까지 끄르륵 삼키고 '신사'를 쳐다본 것이다.

내공 쌓기 ⑦

127쪽	**01** ④ **02** ④ **03** ③

01 '수남'은 '신사'가 수리비를 가져와야 자전거를 돌려준다고 하며 자전거를 빼앗자 구경꾼들의 충동질에 힘을 얻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게 된다. 이로써 '수남'과 '신사'의 갈등이 해결된다.

[참고 자료] 갈등의 개념

갈등이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인물의 마음속에서 또는 인물 사이나 인물과 환경 사이에서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문학 작품에서 갈등은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긴장감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갈등의 전개와 해결 과정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할 수도 있다.

02 '진퇴양난(進退兩難)'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뜻하므로, '신사'가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운 채 빌딩으로 들어가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연히 서 있는 '수남'의 처지를 가리키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애지중지(愛之重之)'는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으로, 이 글에 '수남'이 자전거를 애지중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신사'보다는 '수남'의 처지에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③ '언감생심(焉敢生心)'은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는 뜻으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음을 이르는 말이다. 구경꾼들은 '신사'와 '수남'의 싸움을 흥밋거리로 여기고 있을 뿐 '신사'를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다.
⑤ '속수무책(束手無策)'은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을 이르는 말이다. 운전사는 '신사'의 말에 묵묵히 따르고 있으며, '수남'을 도와주고 싶어하거나 마지못해 자물쇠를 사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수남'에게 자전거를 빼앗아 자물쇠를 채우고, 망연자실해 하며 서 있는 '수남'을 힐끗 쳐다보며 유유히 빌딩 속으로 사라진 '신사'의 모습은 그가 냉정한 성격을 지녔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수남'을 감시하려는 의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수남'이 '신사'의 요구에도 끝까지 '주인 영감'의 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통해, '주인 영감'에게 충성을 다하려는 우직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② '수남'은 돈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지, '신사'가 순순히 넘어가지 않고 돈 대신 자전거를 담보로 삼을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④ 구경꾼들은 '수남'을 진심으로 염려하거나 동정하기보다는 흥미 위주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⑤ 구경꾼들은 '수남'에게 도망가라고 외치며 부도덕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이는 '수남'의 내적 갈등을 유발한다.

내공 쌓기 ⑧

129쪽 | 01 ③ 02 ④ 03 ④ 04 ① 05 ①

01 '수남'은 자물쇠를 분해하는 '주인 영감'이 흡사 '도둑놈 두 목' 같아 보여 정이 떨어지고, '주인 영감'의 얼굴이 '누런 똥빛'인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수남'은 '주인 영감'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주인 영감'은 '수남'이 자전거를 통째로 들고 온 상황에서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이는 자신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남'은 이렇듯 자신의 비도덕적인 모습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을 보고 '주인 영감'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된다.

03 ㉡은 '수남'이 자전거도 빼앗기지 않고, 수금한 돈도 빼앗기지 않았으므로 아무 손해도 입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는 '주인 영감'이 '수남'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아무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수남'을 칭찬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주인 영감'이 ㉡과 같이 표현한 것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는 '주인 영감'이 지닌 물질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수남'은 운 트기는커녕 재수 옴 붙었다는 생각이 여전하고, 그날 온종일 우울했다고 하였으므로 '수남'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도둑질을 한 '수남'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으므로, '주인 영감'의 부도덕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⑤ '수남'이 한 일(도둑질)의 결과로 자신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 영감'은 "운 텄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04 '수남'은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혼내기보다 오히려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에서, '주인 영감'이 도덕적 양심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깨닫고 거부감과 혐오감을 느낀다.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사건으로 인해,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남'의 태도가 변한 것이다.

내공 기르기

'수남'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도 '주인 영감'은 '수남'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해 주고 있어. '수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주인 영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05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자전거를 들고 온 행동에 대해 자신이 비양심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태도와, '신사'의 태도가 너무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몰래 자전거를 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이고, ⓑ~ⓔ는 자신의 행동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내공 기르기

내적 갈등이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두 가지 욕망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어떤 하나의 대상을 보고 애정과 증오처럼 완전히 다른 감정이 동시에 생길 때 주로 나타나.

내공 쌓기 ⑨

131쪽 | 01 ③ 02 ④ 03 비양심성 / 부도덕성 04 ③

01 '수남'은 '그 도둑놈과 형제간이란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몸서리가 쳤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도둑질을 한 '수길'에 대한 '수남'의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지, '수남'이 '수길'과 형제의 연을 끊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온 집안 식구가 기대를 걸고 고등학교까지 마쳐 준 보람도 없이'를 통해 형 '수길'이 가족의 기대를 받고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⑤ '그 도둑놈과 형제간이란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몸서리가 쳤다.'를 통해 '수길'에 대한 '수남'의 실망과 분노, 도둑질에 대한 '수남'의 가치관이 나타난다.
④ '"2년 만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단 말야.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단 말야." / 그래서 읍내 양품점을 털어 돈과 물건을 훔친 것이다.'를 통해 '수길'이 2년 만에 집에 돌아오면서 돈과 물건을 훔쳤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충격과 실망감으로 인해 아버지는 화병으로 몸져눕고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게 된다.

02 이 글을 통해 '수남'도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에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고 집을 떠났고, '아버지'는 이를 말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다만 '수남'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을 하지 마라."라고 당부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② '수남의 아버지'는 '수남'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을 하지 마라."라고 하였으므로, '수남'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수 있다.
③ '수길'이 도둑질한 죄로 순경에게 붙잡혀 간 후, '아버지는 화병으로 몸져눕고'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⑤ '주인 영감'은 오직 자신이 금전적인 손해만 입지 않으면 '수남'이 도둑질을 하더라도 칭찬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도둑질만 하지 말라고 하며 '수남'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주는 '수남의 아버지'와 반대된다.

03 **서술형** ㉠은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온 일을 칭찬하던 주인 영감의 얼굴빛이자, 돈과 물건을 훔쳐 집에 돌아온 '수길'의 얼굴빛이다. 또한 자신의 부도덕성 때문에 고민하던 '수남'의 얼굴빛이다. 이와 같이 '누런 똥빛'은 인물들이 부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일 때의 얼굴빛이다. 이로 보아 '누런 똥빛'은 비양심성과 부도덕성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04 '수남'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어른이 그리워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사라져서 '아버지'에게 가기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수남'이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느꼈음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에서는 '수남'의 얼굴에 부도덕성과 비양심성을 상징하는 '누런 똥빛'이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이 빛난다고 하였으므로, ㉡을 통해 '수남'의 내적 갈등과 부도덕성이 해소되고 양심과 순수성을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수남'의 내적 갈등은 '수남'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을 굳히며 해소되었으므로, ㉡을 통해 '수남'이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갈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의 주제는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시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물질적 가치가 팽배한 도시를 떠나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을 지닌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가기로 한 '수남'의 행동은 이 글의 주제와 통한다.

족집게 쏙 예상 문제

본문 132~137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④ 06 ④
07 내적 갈등, (마) 08 ③ 09 ① 10 ① 11 ②
12 ③ 13 ③ 14 ④ 15 ④ 16 ① 17 ⑤
18 ⑤ 19 ①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20** 도둑놈 두목 2단계 **21** ㉠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기, ㉡ 복선 3단계 **22** (다)에 제시된 '누런 똥빛'은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한 '주인 영감'의 얼굴빛이다. (라)에 제시된 '누런 똥빛'은 돈과 물건을 훔쳐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형'의 얼굴빛이다. (바)에 제시된 '누런 똥빛'은 자기 내부의 부도덕성 때문에 고민하던 '수남'의 얼굴빛이다. 이를 통해 '누런 똥빛'은 비양심성, 부도덕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1 이 글은 소설로, 소설은 현실 세계에 일어날 법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이다. 소설은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오답 풀이 ①은 희곡, ②는 시, ④는 주장하는 글, ⑤는 수필의 특징이다.

[참고 자료] 소설의 특성

허구성	사실 그대로가 아닌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이야기이다.
서사성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전개된다.
진실성	꾸며 낸 이야기이지만, 인생의 진실을 추구한다.
예술성	언어를 통해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한다.
모방성	허구의 문학이지만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본뜨거나 반영한다.

02 (나)에서 '수남'은 낮 동안 책은커녕 신문 한 귀퉁이 읽은 적이 없을 정도로 혼자서 바쁘게 가게 일을 해내고 있음에도 억울한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수남이는 청계천 세운 상가 뒷길의 전기용품 도매상의 꼬마 점원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수남'이 '주인 영감'의 "내년 봄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해. 야학이라도 일류로……."라는 말을 듣고 매우 좋아하는 것을 통해 '수남'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함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가)의 '열여섯 살이라지만 볼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토실하니 붉고, 눈 속이 깨끗하다. 숙성한 건 목소리뿐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다)의 '점원이 적어도 세 명은 있어야 해낼 가게 일을 혼자서 해내자니 여간 벅찬 것이 아니다.'에서 알 수 있다.

03 '주인 영감'은 겉으로는 깡패 놈이라도 걸려들어 자신이 아닌 '수남'이 물들까 봐 걱정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 진심으로 '수남'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인건비 지출을 아끼기 위해 점원을 더 채용하지 않는 이유를 숨기려고 둘러대는 것에 불과하다. '주인 영감'이 '수남'을 인정하는 것은 점원 세 사람이 할 일을 혼자서 해내기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게를 '수남'에게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04 '장사가 더럽게 안된다.'라는 말은 '수남'에게 물건값을 주지 않기 위해 '××상회 주인'이 하는 말로, '수남'은 저런 수에 넘어가 호락호락 물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05 '수남'은 장사가 안된다는 '××상회 주인'의 말을 장사꾼의 수라고 생각하고 들은 척도 안하고 버티면서, 버틸 뿐 아니라 속으로 암산까지 하며 물건 대금만큼 돈이 모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는 '××상회 주인'의 말이 거짓임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건 대금을 꼭 받아 내기 위한 행동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수남'은 '××상회 주인'의 말을 믿지 않고 가게에 버티고 서서 손님들이 주는 돈까지 계산하며 자신이 받을 물건 대금만큼 돈이 모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는 '수남'이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영악하게 하는 행동으로 '수남'도 물질을 중시하는 도시 생활에 물들었음을 보여 준다.
② (나)에서 보듯 '수남'은 주인 영감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충직하게 일한다.

06 구경꾼들이 '수남'에게 도망치라고 한 것은 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서이지 '수남'의 억울함을 자신의 일처럼 여겨 도와주려고 해서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신사'는 고급 자가용을 소유하고 운전사를 둔 것으로 보아 매우 부유함을 알 수 있다.
② '신사의 표정은 은은히 감돌던 연민이 싹 가시고 점잖게 무표정해진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수남'의 행동을 알고 훈계하기는커녕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볼 때, '주인 영감'은 도덕과 양심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둑질은 아니었는지 괴로워하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낀 것을 자책하고 있다.

07 서술형 〈보기〉에서 설명하는 갈등은 내적 갈등으로, '수남'이 낮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08 소설은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가)~(다)에는 '신사'와 '수남'의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나)에서 '신사'는 '수남'을 '악질 깡패'라고 하며 시비해 봤댔자 시간만 낭비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신사'가 '수남'과 목소리를 높이며 시시비비를 가렸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가)를 통해 '수남'의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 '신사'의 고급차에 흠집을 낸 것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②, ④ (나)에서 '신사'는 '수남'이 수리비를 내지 못하자 '수남'의 자전거를 잡아놓고 언제든지 오천 원을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⑤ (다)에서 '수남'이 '신사'가 자물쇠를 채워 둔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면서 '신사'와 '수남'의 갈등이 일단락되고 있다.

09 '수남'은 '주인 영감'이 내막을 모르고 한 말이지만, 자전거를 훔쳐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도둑놈 꼴'이란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10 '수남'은 도둑질을 한 자신을 혼내기는커녕 칭찬하는 '주인

영감'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주인 영감'에게 정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주인 영감'이 금전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부도덕한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감정을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라고 표현하고 있다.

11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은 한글 소설이므로, 작자를 알 수 있으며 한글로 쓰인 고전 소설이다.

오답 풀이 ① (다)의 '조선국 병조 판서'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
③ 사람이 태어날 때 신분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불합리화 사회 현실이 드러나 있다.
④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이야기인 소설이다.
⑤ 이 글에서는 서술자가 사건은 물론 주인공인 '홍길동'의 심리까지 묘사하고 있다. 이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 심리,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한다.

12 (가)에서 '길동'의 말을 보면, 대장부가 태어나서 공자, 맹자 같은 학문을 익힌 다음에 장수나 재상이 된다고 하였다. 즉, 학문을 익히는 것이 먼저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의 '사내대장부가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입신양명한 후~'를 통해 당시 남자들의 소망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은 '천생(첩에게서 난 자손, 즉 서얼)'이기 때문이다.
④ '길동'은 병조 판서가 되고 싶지만, 천생이므로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⑤ "재상의 집안에서 천한 노비에게 태어난 사람이 너뿐이 아니다."라는 '대감'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13 '길동'이 갈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천한 신분으로 인해 겪는 차별 때문이다. 이렇듯 「홍길동전」에는 인물이 그가 속한 사회의 관습이나 제도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인물과 사회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14 (다)에서 '길동'은 "당당하게 조선국 병조 판서 대장인을 차고 이름난 장군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산중에 들어가 세상 영욕을 모르는 채 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길동'은 천한 신분으로 인한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에서 나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참고 자료] 「홍길동전」의 줄거리

'길동'은 '홍 판서'와 시비 '춘섬' 사이에서 서얼로 태어난다. 그는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 '홍 판서'의 사랑을 받지만, 천비 소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천대를 받으면서 울분의 나날을 보내다가 출가한다. 집을 나와 떠돌던 중, 도적의 무리를 만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활빈당(活貧黨)'을 조직한다. 그 후 '길동'이 팔도의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양민을 돕자, 조정에서 '길동'을 회유하려고 그를 병조 판서로 임명한다. '길동'은 조선을 떠나 남경으로 가던 중 율도국을 발견하고 이곳을 정벌하여 왕이 된다. '길동'은 율도국에서 선정을 베풀다가 신선이 되어 사라진다.

15 이 소설은 순진한 소년 '수남'의 눈에 비친 도시 사람들('주인 영감', '신사')의 부도덕한 모습을 통해 물질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도시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16 '수남'은 '주인 영감'의 말을 믿고 충직하게 일해 왔으나, '주인 영감'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주인 영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오답 풀이 ② (라)를 통해 '수남'의 형 '수길'이 읍내 양품점을 털어 돈과 물건을 훔쳐 집에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③ (마)를 통해 '수남'은 형이 그랬던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에 왔음을 알 수 있다.
④ '수남'은 형이 도둑질을 하다 잡힌 것을 보며 몸서리를 친다.
⑤ (나)에서 자신이 우는 것을 보고 '신사'의 목청이 누그러지고 목소리에 연민이 담긴 것을 알아챈 '수남'은 흑흑 소리까지 내어 울면서 '신사'의 동정심을 더욱 자극하려 한다.

17 '신사'는 자신이 아끼는 차에 흠집이 났기에 재수 옴 붙은 일이고, '수남'은 바람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자신이 수리비를 물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수 옴 붙은 일이 된다.

18 '수남'은 도둑질을 한 '형'을 떠올리며 자신이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낀다.

19 (마)에서 '수남'의 '아버지'는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수남'은 이렇듯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 줄 어른이 그립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수남'에게 '아버지'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어른임을 알 수 있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20**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부도덕성을 깨닫게 된다.

2단계 **21** 이 소설에서 '바람'은 복선의 기능을 하는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불길한 일이 닥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는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복선'이라는 용어를 바르게 썼다.	□

3단계 **22** (다)에서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온 일을 칭찬하던 '주인 영감'의 얼굴빛, (라)에서 돈과 물건을 훔쳐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날 밤의 '형'의 얼굴빛, (바)에서 자기 내부의 부도덕성 때문에 고민하던 '수남'의 얼굴빛은 모두 '누런 똥빛'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로 보아 '누런 똥빛'은 비양심성, 부도덕성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주인 영감', '형', '수길'에게 사용한 '누런 똥빛'의 의미를 각각 바르게 서술하였다.	□
'누런 똥빛'의 통합적 의미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주어진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2) 배려하며 말하기

내공 쌓기 ①

139쪽 | 01 말의 힘 02 ④ 03 언어폭력 04 ③

01 서술형 '나라'가 시청한 다큐멘터리에서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하고 있다.

02 '이 실험 대상이 쌀밥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실험 기간이 4주가 아닌 4년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말은 쌀밥이 아니라 사람이었더라도, 4주가 아닌 4년이었다면 말이 대상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03 서술형 제시된 내용은 언어폭력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한 것이다. 언어폭력은 말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며, 최근에는 휴대 전화나 인터넷 매체 등에서도 일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04 '배려하는 말하기'란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여 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전해야 할 때에는 가급적 돌려 말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말하는 것이다.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부정적인 내용의 말이라도 꼭 필요한 말이라면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말을 전할 때는 가급적 돌려 말해야 한다.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족집게 쏙 예상 문제

본문 140~141쪽

01 ③ 02 ⑤ 03 글쓴이는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다. 04 ③ 05 ⑤ 06 ⑤ 07 ①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08 언어폭력 2단계 09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긍정적인 말을 써야 한다. 등 3단계 10 민준아, 나는 네가 청소 시간에 청소를 하지 않아서 나 혼자 청소를 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네가 청소 시간에 맡은 일을 잘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어.

01 (나)에서 '옥림'과 '세리'는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뱉으며 싸우고 있으므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올바른 말하기 태도로 보기 어렵다.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신중한 태도로 말해야 한다. 또한 (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자료] 대화의 개념과 대화에서 고려할 점

개념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 작용
고려할 사항	• 대화 상황: 대화 시간, 대화 장소 등 • 대화 참여자: 듣는 이의 요구나 기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한 정도, 배경 지식의 수준 등 • 대화 목적: 정보 수집 및 공유, 관계 발전 등

02 (가)의 한글날 다큐멘터리에서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각각 들려준 쌀밥을 비교함으로써 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있다.

03 서술형 글쓴이는 다큐멘터리에서 다룬 실험을 통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하였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글쓴이가 깨달은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04 (가)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쌀밥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여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바른 언어 생활의 실천을 밥 먹을 때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실험 기간이 4주가 아닌 4년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통해 실험 기간이 길어지면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⑤ (가)는 말의 힘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말이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것을 다짐할 수 있다.
④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쌀에서는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풍겼으므로,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05 무대 중앙에 피아노를 놓아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세리'이다. '옥림'은 이러한 '세리'의 행동에 대해 따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세리'는 마음대로 피아노를 옮겨 무대를 바꾸었으며, '옥림'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말함으로써 '옥림'의 입장과 기분을 무시하였다. '옥림'은 '세리'의 실력이 부족하니 차라리 뒤에 숨어 있는 게 낫다고 말함으로써 '세리'의 입장과 기분을 무시하였다.
② '옥림'은 "피아노 가운데 놓고 드레스 입으면 없던 실력이 갑자기 생기냐? 차라리 뒤에 숨어 있는 게 나아."라고 하여 '세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세리' 역시 "초등학생도 그 정도는 쓰겠다. 우정으로 가는 계단? 유치해서 정말……."이라고 하여 '옥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③, ④ 대화의 내용으로 볼 때, '옥림'과 '세리'는 한 무대에 올라 '옥림'은 시를 낭송하고 '세리'는 피아노 연주를 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6 (나) 역시 표준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으므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이를 지목하기 어렵다.

07 ㉠에는 '세리'가 무대 중앙으로 피아노를 옮긴 상황이 드러나 있으므로 '세리'가 아니라 '옥림'이 화가 난 이유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단계별 서술형 문제로 100점 잡기

1단계 **08** '언어폭력'은 욕설이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조롱하는 말,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말 등으로 상대에게 두려움과 불쾌감,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 **09** 두 친구는 서로에rp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으며, (가)에서는 부정적인 말의 영향에 대해 실험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글쓴이는 대화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말을 써야 한다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의 실험 결과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3단계 **10** 제시된 내용은 '나'를 주어로 상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민준'이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자신의 감정과, 앞으로 '민준'이 어떻게 해 주면 좋을지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나'를 주어로 '민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
〈보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준'이 앞으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을지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

본문 142~149쪽

대단원 평가

01 ① **02** ④ **03** 수남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싶어 한다. **04** ① **05** ⑤ **06** ③ **07** ⑤ **08** (나), (다)에서는 '수남'과 '신사'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마)에서는 '수남'의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 **09** ④ **10** ④ **11** ⑤ **12** ① **13** ⑤ **14** ② **15** ⑤ **16** ② **17** ① **18** ⑤ **19** ④ **20** ⑤ **21** ① **22** ⑤ **23** • '말의 힘'을 깨달았다. • 언어생활을 반성하게 되었다. **24** ④ **25** ① **26** ④ **27** ② **28** ⑤ **29** ⑤ **30**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예쁘다 등

01 이 소설은 작중 인물인 '수남'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 밖에 위치한 작가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이다. '주인 영감'의 시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02 (라)~(마)에서 '수남'은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상회 주인'에게 맞서 악착같이 물건 대금을 받아 내고 있다. 이로 보아 '수남'은 하기 어려운 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인 영감'은 '수남' 한 사람에게 세 사람이 할 일을 시키고 있다.
② '수남'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낼 정도로 성실한 점원이다. 또 가게의 점원이 된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잘못을 했을 때는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착한 성격이다.
③, ⑤ '수남'은 '주인 영감'에게 육친애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주인 영감'의 다정한 손길을 받기 위해 새벽잠을 떨치고 일찍 일어나 일한다.

03 서술형 (가)에는 자기 또래의 고등학생들을 보고 가슴이 짜릿하는 '수남'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자기 또래의 고등학생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 때문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수남'의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수남'이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04 (라)~(마)에서 '수남'과 '××상회 주인'은 물건 대금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상회 주인'은 당연히 주어야 할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수남'은 어떻게든 물건 대금을 받아 내려 하고 있다. (마)에서 결국 악착같이 물건 값을 받아 내려는 '수남'에게 못 이겨 '××상회 주인'이 '수남'에게 물건 값을 주면서 둘 사이의 외적 갈등이 해결된다.

오답 풀이 ② '××상회 주인'은 '수남'에게 얄미움을 느껴 알밤을 때리지만 '수남'은 악착같이 버티고 서 있다.
③ '수남'은 가게 손님들이 주는 돈을 암산하며 얼마가 들어왔는지 헤아려 보고 있지만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④ '××상회 주인'은 오백 원 짜리, 백 원짜리 합해서 물건 대금 만 원을 모두 주었다.
⑤ '수남'은 '××상회 주인'에게 직접 돈을 받았다.

05 '수남'은 은행 막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채로, 급하게 돈을 받아 내려는 장사꾼들이 으레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길래 그래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자기도 어느 틈에 장사꾼다운 징그러운 수를 쓰고 만다.'를 통해 '수남'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도시의 장사꾼들에게 물들어 자신 역시 물건 값을 받아 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럴 때 수남이는 이 세상에 장사꾼처럼 징그러운 족속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나서 한숨이 절로 난다.'를 통해 장사꾼에 대한 '수남'의 부정적인 생각을 알 수 있다.

06 '주인 영감'이 점원을 더 두라는 소리를 제일 싫어하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벌레라도 씹어 먹은 듯이 이상야릇한 얼굴로 상대방을 흘겨보는 이유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수남'을 혹사하여 인건비를 아끼는 것)을 채우기 위해 '수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07 '수남'은 신사가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워 두자 자물쇠가 달린 자전거를 통째로 들고 가게로 달려왔으며, 이를 '주인 영감'이 분해하고 있다.

08 서술형 (나), (다)에서는 '수남'과 '신사', 즉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마)에서는 '수남'이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

평가 기준	확인
(나), (다)와 (마)에 드러나는 갈등의 유형을 각각 밝혀 서술하였다.	□
(나), (다)와 (마)에서 갈등을 겪는 인물을 각각 밝혀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9 '거울처럼 티 하나 없이 번들대는 차체를 면밀히 훑어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환성을 질렀다. 아마 생채기를 찾아낸 모양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차에 생채기가 있다는 '신사'의 말은 거짓이 아니다.

10 이 글에서 '수남'은 '재수 옴 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간판을 다시 점검하고 떼어 세워 놓은 빈지문을 좁은 옆 골목 변소 앞에 끼워 놓는 등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가게를 점검하지만, 결국 '바람'으로 인하여 '신사'와의 분쟁이 생기고 만다.

오답 풀이 ①, ⑤ 을씨년스러운 서울의 '바람'은 뒤에 일어날 불길한 사건(바람에 '수남'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신사'의 차에 흠집을 냄.)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
②, ③ '바람 부는 서울의 뒷골목은 흉흉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먼지는 물론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날아들어 가게 앞에 쓰레기 무더기를 만들었다. 쓸어도 쓸어도 당해 낼 도리가 없었다. / 손님도 딴 날보다 적고 수남이는 까닭 없이 마음이 울적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1 '수남'은 자전거 사건 이전에는 진심으로 '주인 영감'을 좋아하며 육친애를 느꼈으나, 자전거 사건 이후에 '주인 영감'이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12 (가)~(라), (마)~(바)는 소설로, 현실에서 있음 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을 덧붙여 꾸며 낸 이야기이다.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희곡의 특징이다.

오답 풀이 ② 소설은 일반적으로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의 5단계로 구성된다.
③ 소설은 꾸며 낸 이야기이지만 현실의 상황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④ 소설은 다양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⑤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13 (마)~(바) (「홍길동전」)는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을 전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가)~(라) (「자전거 도둑」)는 1970년대의 몰인정한 세태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기는 하나, '수남'이라는 인물이 비인간적인 도시 사람들과 갈등하고 있을 뿐, 사회 제도와 갈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수남이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에서 도망가라는 말에 흔들리는 '수남'의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난다.
② '수남'은 자신이 한 일이 도둑질이 아니었는지 고민하고, 도둑질이 아니었다 해도 그 과정에서 쾌감을 느꼈으므로 앞으로 도둑질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다.
③ '수남'은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인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며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④ (가)~(라)에서 '수남'은 현재 있는 곳인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고, (마)~(바)의 '길동' 역시 현재 있는 곳인 집을 떠나 산중으로 들어가기로 하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적서 차별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적자와 첩에게서 태어난 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제도이다. 조선 시대에 양반가의 서얼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리', 또는 '대감'이라고 불러야 했다. 또한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재산을 물려받지도 못했다. 이렇듯 조선 시대에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사람을 '적자'와 '서얼'로 구분해 차별을 두었다. 또한 서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관료로서 출세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막혔고, 양반 사대부들이 천시하던 기술직에만 진출할 수 있었다.

14 '수남'은 '신사'에게 자전거를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 구경꾼들의 외침과 분위기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게 된다. 그리고 (다)에서 이것이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것은 '주인 영감'을 도와주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의 '수남이는 드디어 어느 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섰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③ (다)의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④ (라)의 '소년은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이 그리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⑤ (라)의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남이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5 「홍길동전」이 배경으로 하는 조선 시대는 유교 사회로 입신양명을 이상으로 삼는다. (마)~(바)에서 '길동' 역시 적서 차별에 대한 저항 의식과 입신양명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길동'은 장수와 재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만, 신분이 낮아 기회를 얻지 못한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신분을 뛰어넘어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하는 '길동'의 소망을 드러낸다.
② (바)에서 '길동'은 사내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③ 조선 시대는 적서 차별이 존재하였는데, 서자는 호부호형할 수 없었다. 이는 '길동'이 갈등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④ 조선 시대는 축첩 제도가 존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첩에게 태어난 서얼이 존재했고, '길동'도 노비 출신의 첩에게 태어난 얼자였다.

16 '길동'은 적서를 차별하는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길동'의 아버지인 '대감'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길동'에게 호부호형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속세

를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③ '길동'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천생이라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것이다.
④ '어머니'와 '소자'는 모자 관계에서 쓰이는 말로 서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다. '길동'은 재상인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부르고 자신은 '소인'이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호칭은 서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가문이나 혈통 따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것임을 이르는 말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성공하고자 하는 '길동'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17 '수남'이 서울에 오게 된 이유이자, 집을 떠나게 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은 서울로 떠나는 '수남'에게 한 당부이지, '수남'이 그 말로 인해 서울에 온 것은 아니다.

18 '길동'은 (바)에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현실에 절망하여 속세를 떠나고자 한다. '길동'이 조선국 병조 판서 대장인을 차고 이름난 장군이 되지 못하는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길동'이 서자이기 때문에 신분의 한계가 있어 입신양명할 기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 ⓓ는 조선 시대에는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는 일(입신양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 (가)의 글쓴이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긍정적인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대화를 한 '옥림'과 '세리'에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

21 '옥림'과 '세리'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할 때 ①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2 (가)의 다큐멘터리에서 보여 준 실험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글쓴이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깨달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실험 기간이 더 길었거나 쌀밥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스스로 묻고 있다. 이를 통해 실험 대상이 사람이거나 실험 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로 인해 입을 피해가 더 심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3 서술형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고, 나의 언어생활을 반성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말의 힘'에 대한 깨달음을 서술하였다.	□
언어생활을 반성하였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24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될 경우 대화를 오래 하고 싶지 않아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표정이 안 좋아진다. 또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한 바를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과 관련이 없다.

25 '옥림'과 '세리'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둘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사이가 나빠질 것이다.

26 제시된 만화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여학생이 늦은 사정도 듣지 않은 채 비난만 하여 여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으며, 여학생 또한 기분이 상해 같이 화를 내고 있다. (나)의 '옥림'과 '세리' 역시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지 않고 실력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

27 (가)~(다)에서 '수남'이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의 경우에서도 '수남'은 '신사'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상회 주인'의 태도에도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는 것을 통해 '수남'의 진득하고 끈질긴 성격을 엿볼 수 있다.
③ '신사'는 '수남'의 호소에도 '악질 녀석'이라고 말하고 차갑게 대하며 큰돈을 요구한다.
④ '××상회 주인'이 장사가 안된다는 말을 한 것은 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수남'이 여기서 물러가면 열 번도 넘게 와야 수금이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상회 주인'은 평소에 돈에 대해 악착같은 태도로 집착하는 인물이다.
⑤ '주인 영감'이 '수남'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기는 하지만, 이는 '수남'이 다칠까 봐 걱정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사고를 내서 돈을 물어 주게 될까 봐 걱정해서이다.

28 (다)의 신사가 (라)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으므로,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를 보여야 한다. ⑤는 언어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아닐 뿐더러, '수남'을 배려하는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29 (마)는 휴대 전화 앱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언어 습관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 기사이다. 따라서 이를 읽은 후에는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휴대 전화를 사용할 때만 올바른 언어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사를 제대로 파악한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30 서술형 ㉠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가 즐거워지며 자신 역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말이다. 이러한 말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예쁘다, 좋은 생각이야, 재미있다, 참 잘했구나' 등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가 즐거워지는 말을 서술하였다.	□
긍정적인 말을 세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

최종 모의고사 | 중간고사 1회

본문 152~157쪽

01 ⑤ 02 ⑤ 03 빗나간 야구공 하나 04 ③
05 ③ 06 ② 07 ③ 08 ③ 09 ⑤
10 ② 11 ⓐ '바위'는 꽃이나 풀과 달리 변치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굳건하고 의연한 태도를 상징한다. 12 ③
13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 책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독후감이나 서평을 쓸 때 도움이 된다. / 책 읽기 경험을 나눌 때 활용할 수 있다. 등 14 ⑤ 15 ⑤
16 ④ 17 ③ 18 ④ 19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보자. 20 ⑤ 21 ④
22 ③ 23 ③ 24 (다), (다)의 중심 내용은 '독도에 살았던 강치'로 이 글의 주제인 '독도의 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25 ⑤

01 (가)와 (나)의 갈래는 시로, 시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음악성과 함축성을 지닌 언어로 재구성하여 창작한다. 그러므로 시를 감상할 때에는 시어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감상해야 한다.

02 (가)는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의 풍경과 그 사이로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눈으로 보는 듯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는 '밤하늘은 / 별들의 운동장'과 같이 행을 구분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③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인 직유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밤하늘(원관념)'을 '운동장(보조 관념)'에, '유성(원관념)'을 '빗나간 야구공(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03 서술형 (가)에서는 '유성'이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떨어지는 모습을 '빗나간 야구공 하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유성'과 '빗나간 야구공 하나'는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인다는 유사성이 있다.

04 (나)는 비유를 활용하여 봄의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연에서는 부드럽고 고운 느낌, 2연에서는 정열적이고 생명력 있는 느낌, 3연에서는 나른하고 포근한 느낌, 4연에서는 생동감 있는 느낌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애틋함은 나타나지 않는다.

내공 기르기

'애틋함'이란 섭섭하고 안타까워 애가 타는 듯한 감정, 또는 정답고 알뜰한 맛이 있음을 의미해.

05 (나)의 [A]에서는 직유법을 통해 '고양이의 눈'을 '금방울'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고양이의 눈'에서 '봄의 불길'을 떠올리고 있다. 즉 [A]에서 표현하는 봄의 속성은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거칠고 역동적인 느낌이다.

06 (가)의 ㉠은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 관념 등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으로, 이러한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사물인 '꽃'이 웃는다고 표현한 ②이다.

오답 풀이 ①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③ 속담이나 격언처럼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풍유법이 사용되었다.
④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같이, 처럼, 듯이' 등의 말로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⑤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07 (가)는 '진눈깨비', '함박눈' 등의, (나)는 '물', '바위', '달' 등의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 등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한 상징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비유와 상징의 차이

비유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결합이 뚜렷하게 드러남.
상징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통합하였으나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은 생략하고 보조 관념만 제시함.

08 (가)의 말하는 이는 힘들고 지친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진눈깨비'가 되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함박눈'이 되자고 하며,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9 (가)는 상징하는 바가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소망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함박눈', ㉣ '편지', ㉥ '새살'은 위로, 격려, 희망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시어이고, ㉠ '진눈깨비', ㉡ '바람', ㉤ '깊고 붉은 상처'는 무관심, 외면, 고통, 슬픔 등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시어이다.

10 (나)에서 소리를 흉내 낸 말이나 모양,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③ (나)는 자연물인 '물, 바위, 달'을 마치 사람인 양 '벗'으로 칭하면서 이들이 상징하는 삶의 태도를 예찬하고 있다.
④ (나)는 '구름', '바람'과 '물'을 대조하고, '꽃', '풀'과 '바위'를 대조하면서, 긍정적 성격인 '물', '바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나)는 제2수와 제3수의 1행과 2행에서 같은 구조의 시구를 연속으로 제시하는 대구법이 나타나고, 제3수와 제6수의 2행에서 설의법이 나타나고 있다.

11 서술형 (나)에서 ⓐ '바위'는 쉽게 변하는 '꽃'이나 '풀'과 대조되어 변치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바위'는 굳건하고 의연한 태도를 상징함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변치 않는다는 '바위'의 특징을 썼다.	□
'바위'가 굳건하고 의연한 태도를 상징함을 썼다.	□

12 제시된 대화에는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나타나 있다. '준서'의 "나는 사서 선생님께 책 추천을 부탁드려야겠어."라는 말에 책을 고르는 방법은 드러나지만, 사서 선생님께 추천받은 책의 종류는 드러나지 않는다.

13 서술형 독서 일지를 작성하면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독후감이나 서평을 쓸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독서 일지를 쓸 때의 장점 두 가지를 썼다.	□
완결된 문장 형식으로 썼다.	□

14 제시된 독서 일지의 '낯선 낱말이나 모르는 개념, 더 알고 싶은 내용' 항목을 보면 '낯선 용어'에 '불야성, 럭스(lux), 휴면'이 있고, '더 알고 싶은 내용'에는 '인공조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 빛 공해와 관련된 법'이 있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곤충들의 종류'는 이러한 내용과 관계가 없다.

15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지만, (마)에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견해가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처음 – 가운데 – 끝'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③ 이 글은 사람들이 처음에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현상의 원인인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이 글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구체적인 사례로, 사람들이 처음에 형성한 첫인상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 것과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16 글을 예측하며 읽으면 글에 집중하며 읽을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분량만으로 글의 결말을 예측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읽는 시간을 단축하기도 어렵다.

17 글쓴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로 인한 편견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개념의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글쓴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달하고 있다.

18 〈보기〉에서는 (다)에 나타난 글의 내용과 글의 맥락을 통해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즉, 글에 나타난 정보나 읽기 맥락을 활용하여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내공 기르기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의 제목, 독자의 배경지식, 글에 나타난 정보나 읽기 맥락, 글쓴이에 대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예측할 수 있어.

19 서술형 (마)의 '따라서 우리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글쓴이가 말하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첫인상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보자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바르게 썼다.	□

20 제시된 글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내용이 유기적이지 않아 글쓴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즉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아 통일성이 부족하다.

21 제시된 대화에 따르면 '정우'는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친구들(예상 독자)에게 독도를 설명하는 글(글의 주제, 글의 종류)을 쓰려고 한다. '정우'는 이번에 열심히 준비해서 친구들에게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하였다(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그러나 이 대화에 글의 제목에 대한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22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한 개요를 작성할 때, 글의 제목과 주제를 고려해야 하며, 내용이 적절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야 하고, 상위 항목과 세부 내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도에 사는 다양한 생물'은 '독도의 지리'와 관련이 적으므로 그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23 독도 사진전 개최를 안내하는 자료는 이 글의 주제인 '독도의 가치'와 거리가 멀고, 따라서 이 글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활용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독도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알아보기에 적절하다.
② 독도의 위치적 가치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④ 독도의 지리적·위치적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⑤ 독도가 환경·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찾아보기에 적절하다.

24 서술형 이 글은 '독도의 가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문단과 문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다)의 중심 내용은 '독도에 살았던 강치'로 글의 주제와 관련되지 않는다.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단을 (다)로 쓰고, (다)의 중심 내용을 적절하게 썼다.	□
이 글의 전체 중심 내용을 적절하게 썼다.	□

25 ㉠은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의 중심에 독도가 있다는 내용으로,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가)의 중심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독도의 위치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라)로 이동해야 하며 ㉥의 뒷 문장도 ㉠의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이므로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최종 모의고사 | 중간고사 2회

본문 158~163쪽

01 ⑤ **02** ⑤ **03** ① **04** ④ **05** 유성,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06** ⑤ **07** ④ **08** ④ **09** ⑤ **10** 말하는 이는 만물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 '달'처럼 과묵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11** ④ **12** ③ **13** ㉠ 독서 일지, ㉡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느낀 점 **14** ① **15** (다) **16** ④ **17** ② **18** ⑤ **19** ② **20**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자원을 아끼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 **21** ④ **22** ③ **23** ④ **24**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라는 문장을 삭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단의 중심 내용인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문단의 통일성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25** ⑤

01 (가)와 (나)는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시이다. 작가는 시 속에 말하는 이(시적 화자)를 내세워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시에서 말하는 이는 보통 시인 자신이기는 하지만 시인이 설정한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시의 말하는 이가 시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시는 일상적인 언어와 다른, 세련되고 함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를 통해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②, ④ 시는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나타낸 글로 시를 읽을 때 말의 가락이 느껴지고 마음속에 다양한 심상이 떠오른다.

[참고 자료] 시의 3요소

운율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심상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감각적인 모습
주제	시인이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02 (가)와 (나)는 모두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한 자유시이고, 운율은 겉으로 규칙성이 드러나지 않는 내재율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빗나간 야구공 하나(유성)' 등에서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봄은 고양이로다'라는 제목에서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② (가)에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나)에는 후각적, 시각적, 촉각적 심상이 각각 나타난다.
③ (가)에는 색채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의 '푸른 봄의 생기'에는 '푸른'이라는 색채어가 사용되고 있다.
④ (가)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지만, (나)에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난다.

03 말하는 이가 바라보는 것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다. 말하는 이는 이 광경이 마치 운동장에 아이들이 가득 찬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관념 '밤하늘'을 '별들의 운동장'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별'이라는 사물이 부산하게 바자닌다고 표현하여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유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였다.
③ '-도다'라는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말하는 이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양이의 눈'이 '금방울'처럼 동그랗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봄의 생기'가 '뛰놀'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봄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04 ⓐ '아득히 들리는 함성'에는 소리와 같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감각을 떠오르게 하는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달님도 소리 내어 깔깔거렸네'에서도 웃음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② 미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③ 후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⑤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05 서술형 ⓑ '빗나간 야구공'은 '유성'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빗나간 야구공'은 운동장을 벗어난 공으로, 이는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나 떨어지는 유성과 움직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가 뜻하는 대상을 썼다.	□
ⓑ와 유성의 공통점을 '궤도'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썼다.	□
'~점에서 유사하다.'의 문장 형식으로 썼다.	□

06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는 '함박눈, 진눈깨비'와 같이 상징적 의미를 담은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 역시 '구름, 바람, 바위'와 같이 상징적 의미를 담은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연 구분이 없이 12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여러 연으로 구성된 연시조이다.
② (가)는 정해진 형식이나 운율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시이고, (나)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구성된 정형 시조인 평시조이다.
③ (가)는 '우리'가 '눈발'이 된 상황을 가정하여 시인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이러한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나)는 '~자'와 같은 청유형 문장으로 듣는 이의 공감과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07 (가)에서는 '함박눈, 편지, 새살'을 통해 '위로, 격려, 희망' 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상징한다. 한편 '진눈깨비, 바람, 깊고 붉은 상처' 등의 부정적인 시어는 '무관심, 외면, 고통, 슬픔' 등을 상징한다. 이렇듯 시어의 대비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시인의 지향점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오답 풀이 ① 말하는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며, 그리움의 정서도 느끼고 있지 않다.
② 의문형이 아닌 청유형의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
③ 말하는 이의 경험이 드러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말하는 이는 자연과 하나된 삶이 아닌,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08 (나)에서 말하는 이는 '물', '바위', '달'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은 정직하고 청렴한 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상징하고, '바위'는 굳건하고 의연한 태도를 상징하며, '달'은 과묵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한편 '풀'은 푸른 듯 누런 존재로, 자주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따라서 말하는 이는 '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물'과 '구름, 바람', '바위'와 '꽃, 풀'을 대조하여 '물'과 '바람'을 예찬하고 있다.
② '물, 바위, 달'이라는 자연물을 벗으로 의인화하여 예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말하는 이가 '벗'이라 칭하는 '물, 바위, 달'이 각각 상징하는 삶의 태도에서 말하는 이가 지향하는 인생관이 잘 드러나 있다.
⑤ '누러느냐', '있느냐'와 같이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설의법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09 '함박눈'은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 이와 같이 위로, 격려, 희망 등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시어에는 '편지'와 '새살'이 있다. '진눈깨비'는 '함박눈'과 대조되며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거나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존재를 상징한다. '진눈깨비'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에는 '바람', '깊고 붉은 상처'가 있다.

10 서술형 말하는 이는 (나)의 ㉡에서 만물을 다 비추면서도 말이 없는 '달'의 과묵한 태도를 예찬하고 있다. 즉 말하는 이는 과묵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말하는 이가 과묵함과 포용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썼다.	□
'내 벗'이 지칭하는 대상이 '달'임을 썼다.	□
'말하는 이는 ~ 생각한다.'의 문장 형식으로 썼다.	□

11 모둠 구성원과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할 때에는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찾아보거나, 사서 선생님께 추천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서평이나 기사문 등을 검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함께 읽을 책의 분야, 독자의 수준, 책의 분량 등을 고려해 책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책 읽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떤 책을 읽을지 선정한 다음에 수행하는 활동이다.

12 (나)의 일지에서 매미는 원래 낮에만 울고 밤이 되면 울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나)의 글쓴이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낯선 용어와 인공조명, 빛 공해에 대한 것이다. 또한 매미의 생애를 촬영한 자연 관찰 영상물은 책의 내용과도 관련이 적어 더 찾아볼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13 서술형 (나)는 책을 읽으며 작성한 '독서 일지'에 해당한다. 독서 일지의 세부 항목인 ㉡에 제시된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는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느낀 점이 들어가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이 독서 일지임을 썼다.	□
㉡에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이 들어가야 함을 썼다.	□

14 (가)를 보면, 뚱뚱한 사람이 절제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의 행동 중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는 것만 받아들인 후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부합하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아예 무시해 버린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첫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첫인상은 사람들이 제한된 정보뿐인 자기의 잣대로 재단하여 마음대로 형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⑤ (나)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로 인해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것처럼 여긴다고 하였다.

15 서술형 (다)에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람의 성격을 555개의 단어로 정리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성격을 보이는 아버지와 친구의 사례를 들어 사람의 성격에는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16 ㉠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읽기 맥락을 바탕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17 (라)에서 글쓴이는 첫인상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다. 글쓴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기게 하는 원인을 '가설 검증 바이어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릴 것을 권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영향을 미치는 첫인상만으로 상대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은 이미 글에 제시되어 있다.
③ 첫인상을 형성할 때 여러 정보가 아닌 제한된 정보만을 사용한다.
④ 글쓴이는 첫인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이 첫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속적 관계를 중시할 것이다.
⑤ 글쓴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18 이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글이다.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의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읽어야 한다. 또한 배경지식이나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예측하면서 읽으면 글을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일부러 글쓴이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례를 찾아 글의 오류를 지적할 필요는 없다.

19 동물과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는 글쓴이의 직업과 이력을 고려했을 때, 글쓴이는 환경 보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이 글을 썼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제목을 통해 글의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③ 글의 종류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구조를 예측한 것이다.
④ 글의 내용과 읽기 맥락을 바탕으로 낱말의 뜻을 예측한 것이다.
⑤ 글의 내용과 읽기 맥락을 바탕으로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것이다.

20 서술형 (라)를 통해 글쓴이는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자원을 아껴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을 준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자원을 아끼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21 (가)의 대화를 통해 예상 독자(중학생 친구들), 글의 종류(설명하는 글), 글의 목적(친구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 글의 주제(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는 알 수 있다. 그러나 글의 분량은 계획하지 않았다.

22 '정우'는 독도에 관해서 정작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하였다. 이 점은 (가)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ㄷ'의 설문 조사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과는 관련이 적다. 따라서 'ㄷ'을 '처음' 부분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3 (나)에서 ㉠ '가운데 – 1 – 나. 경제적 가치' 항목은 '가운데 – 3. 독도의 가치'의 하위 항목에 해당하므로 '가운데 – 3'으로 이동해야 한다. ㉡ '가운데 – 2 – 라. 독도를 관광하는 방법' 항목은 상위 항목인 '가운데 – 2. 독도의 역사'와 관련이 없고 제시된 다른 상위 항목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이 개요에서 삭제해야 한다.

내공 기르기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적절히 배치해야 해.

24 서술형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독도의 환경이 특수하며, 그곳에 희귀한 생물들이 많이 살아서 독도가 환경·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라는 문장은 독도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여 가치가 있다는 이 글의 중심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문단의 통일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이 글의 중심 내용을 바르게 썼다.	□
삭제해야 할 문장을 바르게 찾아 썼다.	□
삭제해야 할 문장은 중심 내용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또는 통일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삭제해야 함을 썼다.	□
완결된 문장 형식으로 썼다.	□

25 이 글은 한 편의 글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유기적이지 않아 글쓴이가 전하려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중심 내용으로 사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고쳐 써야 글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다.

최종 모의고사 | 기말고사 1회

본문 164~169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③ **05** 어떤, 옛 **06** ④ **07** ③ **08** ① **09** 어종(말의 뿌리) **10** ② **11** ⑤ **12** ③ **13** ② **14** ④ **15** ⑤ **16** ⑤ **17** ④ **18** ㉠에서 '누런 똥빛'은 비양심성과 부도덕성을 상징한다. ㉠은 '수남'의 부도덕성이 해소되고 내적 갈등이 해결되어 잃어버린 도덕성과 순수성을 회복하였음을 의미한다. **19** ⑤ **20** ③ **21** 산중에 들어가 세상 영욕을 모르는 채 지내는 방법으로 / 세상을 벗어나 산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22** ③ **23** ④ **24** ① **25** ③

01 품사의 분류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이다. 형태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 가변어와 불변어이며,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품사는 기준에 따라 묶어 놓은 낱말의 무리를 의미한다. 품사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④ 품사는 형태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는데,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이 가능하여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⑤ 낱말을 품사별로 분류하면 낱말의 특성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02 제시된 낱말 중 '꽃, 우리'는 체언, '아하'는 독립언, '매우'는 수식언이다. 체언과 독립언, 수식언은 공통적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오답 풀이 ①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수식언에 관련된 설명이다.
② 독립언에 관련된 설명이다.
③ 체언에 대한 설명이다.
④ 관계언에 대한 설명이다.

03 ㉠과 ㉡은 구체성의 여부에 따라 명사를 나눈 것으로, ㉠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 명사이고, ㉡은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셀 수 있는 말이고, ㉡은 셀 수 없는 말이다.
② ㉠과 ㉡ 모두 홀로 쓰일 수 있다.
③ ㉠과 ㉡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⑤ ㉠과 ㉡ 모두 같은 종류의 사물에 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이다.

[참고 자료]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

고유 명사	낱낱의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 예 경기도, 프랑스, 유관순
보통 명사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는 명사 예 도시, 나라

04 밑줄 친 낱말들은 대명사이며, '저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에 제시된 '(불가사리가 새겨진 크고 화려한) 굴뚝'이다.

오답 풀이 ① 대명사는 체언으로, 체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② '그'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로 여기서는 '사신'을 가리킨다.
④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한다.
⑤ 대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이다.

05 서술형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는 관형사로 〈보기〉에서는 명사인 '가수'를 꾸미는 '어떤'과, 명사인 '추억'을 꾸미는 '옛'이 관형사에 속한다. '좋아했던'은 명사를 꾸미지만, 동사 '좋아하다'의 관형형으로 품사는 동사이다.

06 〈보기〉의 단어를 의미상으로 분류하면 '웬'은 '어찌 된'이라는 의미의 관형사이고, '모든'은 '빠짐이나 남김이 없이 전부의'라는 의미의 관형사이다. 그러나 '열심히'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언에 속한다. 수식언은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② 수식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③ 수식언은 주로 뒤에 오는 다른 말을 꾸미는 기능을 한다.
⑤ '웬'은 뒤에 오는 명사인 '눈'을, '모든'은 뒤에 오는 명사인 '과목'을, '열심히'는 뒤에 오는 동사인 '하였다'를 수식한다.

07 주격 조사 '가'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에서 '부른다'의 주체가 되게 하고, 목적격 조사 '를'은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에서 '부른다'의 대상이 되게 한다. 즉, ㉠과 ㉡은 '가'와 '를'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앞말의 자격이 달라져 문장의 뜻이 달라진 것이다.

08 ㉠은 형용사이고 ㉡은 동사이다. 동사는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로 명령의 의도를 담은 '-어라 / -아라'를 붙여 활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므로 이와 같은 활용이 불가능하다.

오답 풀이 ② 형용사와 동사는 문장 안에서 활용하는 가변어에 속한다.
③ 형용사와 동사는 문장 안에서 보통 주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④ 형용사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는다 / -ㄴ다'를 붙여서 활용할 수 없지만, 동사는 활용이 가능하다.
⑤ ㉠은 형용사로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은 동사로 대상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09 서술형 '패션쇼, 디자이너'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외래어이고, '빨갛다, 쌀'은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고유어이다. 또한 '효자(孝子), 심정(心情)'은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자어이다. 즉, 〈보기〉의 단어를 어종(말의 뿌리)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0 '고치다'는 고유어이고, '수선(修繕)하다', '치료(治療)하다', '수리(修理)하다'는 모두 한자어이다.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분화되어 문맥에 따라 의미 차이가 있으므로 대체하여 쓸 수 없다.

11 〈보기〉는 공식적인 상황인 방송이 끝난 후, 대기실에서 사회자와 출연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므로 비공식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적 상황에서 같은 지역 사람끼리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친근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12 비밀 유지의 기능이 있는 어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정 집단의 구성원끼리만 사용하는 '은어'이다.

오답 풀이 ① 전문어는 학술이나 기타 분야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는 말이다.
② 분야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어가 다른데 '인후염, 오퍼러빌리티'는 의학, '파생 접미사, 전성 어미'는 국어학 분야의 전문어이다.
④ 전문어는 뜻이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어 전문어를 사용하면 전문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⑤ 전문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인과 의사소통할 때에는 쉽게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13 제시된 글은 '은어'에 대한 설명이다. ② '무림, 도자, 산개, 데팽이'는 심마니들이 사용하는 은어이다.

오답 풀이 ① 속어의 예이다.
③ '남긔'는 '나무', '감재'는 '감자', '겁나게'는 '매우', '토깽이'는 '토끼'의 지역 방언이다.
④ 조선업과 관련된 전문어이다.
⑤ 색깔을 표현하는 말이 발달하였음을 보여 주는 고유어이다.

14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로 우리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미 널리 오랫동안 쓰인 외래어라 하더라도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15 이 글은 소설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순진한 소년인 '수남'의 눈에 비친 인물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어른들의 부도덕성을 고발하고 있다.
② '수남'이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나, '수남'의 전 생애를 다루지는 않는다.
③, ④ 각각 시와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16 이 글에 제시된 구경꾼들은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칠 것을 부추기고 있다. '수남'은 이러한 말에 용기를 얻어 '신사'가 가져간 '자신'의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고 있다.

17 제시된 글에서 이 글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시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인 영감'은 '수남'이 '신사'의 자동차에 흠집을 내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에서 '수남'을 진정으로 걱정하기 보다 금전적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내공 기르기

'수남'은 자물쇠를 분해하는 '주인 영감'을 보고는 '도둑놈 두목 같아 보'이고 얼굴이 '누런 똥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를 통해 '주인 영감'의 인물됨과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남'의 감정을 알 수 있지.

18 서술형 ㉠에서 '누런 똥빛'은 비양심성과 부도덕성을 상징한다. '수남'의 얼굴에서 '누런 똥빛'이 가셨다는 것은 '수남'의 내

적 갈등과 부도덕성이 말끔하게 해소되면서 양심과 순수성을 회복하였음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누런 똥빛'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였다.	□
'수남'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서술하였다.	□
'수남'이 양심과 순수성을 회복하였음을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9 (나)에서 '길동'은 "어머니께서는 소자와 전생에 귀중한 인연이 있어 오늘날 모자지간이 되었습니다.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더 큽니다."라고 말하며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수남'은 저녁을 먹은 뒤 자유 시간이 생겼다.
② (가)에서 '수남'은 공부를 하던 평소와 달리 낮에 자신이 한 짓이 옳은 짓인지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다.
③ (나)의 '사내대장부가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입신양명한 후', '조선국 병조 판서 대장인을 차고 이름난 장군이 되지 못할 바에야' 등에서 장군이 되어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길동'의 바람이 드러난다.
④ (나)에서 '길동'은 옛날 장충의 아들인 '길산'의 삶을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20 (가)에서 '수남'은 자신이 낮에 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해 고민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21 서술형 (나)에서 '길동'은 서자라는 신분의 한계로 가정과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즉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길동'은 이러한 갈등을, 세상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길동'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함을 서술하였다.	□
'~는 방법으로'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

22 이 글의 글쓴이가 다큐멘터리를 본 후, '실험 대상이 쌀밥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이라고 한 이유는 실험 대상에 따라 말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3 ㉠은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오래 대화하고 싶지 않은 말이다. 상대의 입장이나 처지를 고려한 말은 긍정적인 말로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가 즐거워진다.

24 ㉠은 돌려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세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부분이다.

25 제시된 글은 바른 언어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앱은 비속어나 욕설보다는 올바른 말을 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이 앱을 홍보하는 문구로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③은 말을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홍보 문구와는 거리가 멀다.

최종 모의고사 | 기말고사 2회

본문 170~175쪽

01 ⑤ **02** '첫째'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며,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문장의 주체가 되는 체언이다. **03** ③ **04** ③ **05** 는, 를, 으로 **06** '음'은 감탄사로,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언이라 부르며, 생략하더라도 문장의 뜻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07** ② **08** ④ **09** ⑤ **10** ② **11** ⑤ **12** ⑤ **13** '엄마'와 '나래'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14** ② **15** ② **16** ② **17** ⑤ **18** 바람. 도시 사람들은 바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수남'은 바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9** ③ **20** ⑤ **21** 작가는 도덕적 양심보다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22** ① **23** ⑤ **24** ④ **25** ①

01 〈보기〉에 제시된 낱말들의 품사는 모두 명사이다.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로, 체언에 속한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체의 역할을 하며, 문장 안에서 다른 말과 관계를 맺고 있다.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은 감탄사이다.

오답 풀이 ①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 준다.
② 명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한다.
③ '걱정, 우정'은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에 해당한다.
④ '우산, 가방, 사탕, 손'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 명사에 속한다.

내공 기르기

추상 명사와 구체 명사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쉽게 생각해 볼까? 추상 명사는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므로 손으로 만질 수 없어. 구체 명사는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대상을 나타내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지.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

02 서술형 ㉠의 '첫째'는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손위인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이며, ㉡의 '하나'는 '수효를 세는 맨 처음 수'를 의미하는 수사이다. 명사와 수사는 주로 문장의 주체가 되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체언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첫째'는 명사, '하나'는 수사임을 밝혔으며, 이들의 의미상 차이점을 썼다.	□
'첫째'와 '하나'가 공통적으로 체언에 속함을 썼다.	□

03 ㉠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은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은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말로 문장 안에서 형태가 변한다.

오답 풀이 ① 관형사에 대한 설명이다.
② 감탄사에 대한 설명이다.
④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⑤ 불변어에 대한 설명이다.

04 국어사전에는 기본형이 실려 있으므로 용언을 사전에서 찾을 때에는 어간에 '-다'가 붙은 형태의 기본형을 찾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고, 서술격 조사인 '이다'도 활용한다.
②, ④ 용언은 어간에 '-ㄴ다', '-어라', '-자' 등의 다양한 어미가 결합하여 시제를 나타내거나(예 치운다 - 현재), 명령(예 치워라)이나 의문(예 치우냐) 및 권유(예 치우자)를 나타내는 등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한다.
⑤ 용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과 형태가 변하는 부분인 어미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05 서술형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는, 를, 으로'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사이다. 제시된 문장의 나머지 낱말 중 '우리'는 대명사, '비'는 명사, '피하려고'는 동사, '지붕'은 명사, '밑'은 명사, '뛰다'는 동사이다.

06 서술형 '음'의 품사는 감탄사로,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낸다. 감탄사는 독립언에 속하며, 독립언은 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음'을 빼도 ㉡의 뜻은 ㉠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평가 기준	확인
밑줄 친 낱말의 품사가 감탄사임을 밝혀 썼다.	□
독립언의 역할과 연결 지어 두 문장이 의미상 큰 차이가 없는 이유를 밝혀 썼다.	□

07 제시된 품사의 순서에 맞게 배열된 문장은 ②이다. 문장에 쓰인 낱말의 품사는 '나(대명사), 는(조사), 밥(명사), 을(조사), 빨리(부사), 먹었다(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우리(대명사), 는(조사), 학생(명사), 이(조사), 아니다(형용사)
③ 민수(명사), 가(조사), 윤아(명사), 의(조사), 집(명사), 에(조사), 갔니(동사)
④ 그(대명사), 는(조사), 높은(형용사), 산(명사), 을(조사), 매우(부사), 좋아했다(동사)
⑤ 희망(명사), 은(조사), 사랑(명사), 보다(조사), 더(부사), 큰(형용사), 가치(명사), 가(조사), 있다(형용사)

08 ㉠은 대명사, ㉡은 부사, ㉢은 관형사, ㉣은 동사, ㉤은 명사이다. ④의 '낮다, 예쁘다, 고요하다'는 형용사이다.

09 낱말은 형태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분류할 수 있다. '먹는다'의 기본형은 '먹다'로 가변어이면서, 용언 중 동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예쁜(기본형 - 예쁘다): 가변어, 용언, 형용사
② 너: 불변어, 체언, 대명사
③ 을: 불변어, 관계언, 조사
④ 빨리: 불변어, 수식언, 부사

10 고유어는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함께 발달해 왔으며, 고유어에는 우리 민족이 지닌 고유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한자어에 대한 설명이다.
③, ⑤ 외래어에 대한 설명이다.

11 '나물'은 고유어, '풍경(風景)'은 한자어, '커피(coffee)'는 영어에서 온 외래어이다.

오답 풀이 ① '명상(瞑想)', '고려(考慮)', '추측(推測)' 모두 한자어이다.
② '석가(釋迦)'는 한자어, '스키(ski)'는 영어에서 온 외래어, '망토(manteau)'는 프랑스어에서 온 외래어이다.
③ '마음'은 고유어, '편지(便紙)'와 '고생(苦生)'은 한자어이다.
④ '버스(bus)'와 '로켓(rocket)'은 영어에서 온 외래어, '테마(Thema)'는 독일어에서 온 외래어이다.

12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작품이 배경으로 하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잘 담아내어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 등을 더욱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낯선 어휘를 사용한다면 독자의 공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②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에 해당한다.
③ 그 지역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④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의 모습을 알 수 없다.

13 서술형 〈보기〉에서는 '엄마'와 딸인 '나래'가 세대 차이로 인해 같은 대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다르게 쓰는 말을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14 (가)~(다)를 통해 알 수 있는 각 어휘의 개념과 특징을 고려하면 ㉠에는 전문어, ㉡에는 은어, ㉢에는 속어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15 '오퍼러빌리티(operability)'는 의사 집단에서 사용하는 전문어로 일반인들은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전문어는 업무 효율을 높여 주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인과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는 쉽게 풀어 사용해야 대화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16 이 글의 갈래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소설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그러므로 소설을 읽을 때에는 갈등의 진행 과정을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다.
③ 희곡을 감상하는 방법이다.
④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다.
⑤ 수필을 감상하는 방법이다.

17 '주인 영감'은 겉으로는 '수남'을 위해 사람을 더 쓰지 않는 척하지만, 사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수남' 혼자에게 세 사람이 할 일을 시키면서 '수남'을 혹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수남'의 어린아이 같은 외모와 성격이 제시되었다.
② (라)에서 '××상회 주인'에게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장사꾼다운 징그러운 수를 쓰는 '수남'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③ (나)에서 자신을 생각해 주는 척하는 '주인 영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고마운 주인 영감님(고마운 어른)'이라 여기는 '수남'의 생각이 제시되었다.
④ (나)에서 세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하느라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수남'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18 서술형 (다)에서는 바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도시 사람들과 바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수남'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 있다. 이는 도시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평가 기준	확인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가 '바람'임을 썼다.	□
바람에 대한 도시 사람들과 '수남'의 인식의 차이를 대조하여 썼다.	□

19 (라)에 주로 나타난 갈등은 물건 대금을 받으려는 '수남'과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상회 주인'의 갈등이다. 즉 인물과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수남'은 청계천 세운 상가 뒷길의 전기용품 도매상의 꼬마 점원이라고 하였으므로 (라)에서 '수남'이 장사꾼이 될지 말지를 정해야 하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말은 옳지 않다.
② (라)에서 '수남'은 물건 대금을 받아 내기 위해 '××상회 주인'에게 자기도 모르게 장사꾼다운 징그러운 수를 쓰고 말았다고 하였으므로 영악하게 살아야만 성공하는 사회로 인해 '수남'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말은 옳지 않다.
④ (라)에서 '××상회 주인'은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지 '주인 영감'에게 직접 주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수남' 또한 물건 대금을 받아 내려는 것이지 '주인 영감' 대신 자신이 직접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⑤ (라)에서 '수남'은 물건 대금을 받아 내지 못하면 '주인 영감'에게 야단을 맞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는 것이지 '××상회 주인'의 수에 넘어갈지 '주인 영감'에게 야단을 맞을지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 (마)에서는 내적 갈등과 부도덕성이 말끔하게 해소되면서 양심과 순수성을 회복한 '수남'의 모습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수남'과 '신사'의 갈등은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는 것으로 끝난다.
② (나)에서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을 떠올리며 공포와 동시에 쾌감을 느꼈음을 회상하고, 그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하고 있다.
③ (다)에서 '수남'은 도둑질을 한 형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하고, 그와 형제간이란 게 몸서리가 쳐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수남'이 도둑질을 혐오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라)에서 '수남'의 아버지는 '수남'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을 하지 마라, 알았자."라고 당부하고 있다.

21 서술형 (마)에서 '수남'은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주인 영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떠난다. 이와 같은 결말을 통해 작가는 도덕적 양심보다 물질적 이익을 좇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작가가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려 했음을 썼다.	□

22 ㉠ '누런 똥빛'은 돈과 물건을 훔쳐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날 밤의 '수남'의 형의 얼굴빛이자, '수남'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자 그의 얼굴에서 말끔히 사라진 빛깔로, 비양심성과 부도덕성을 상징한다.

23 (가)에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 들려준 쌀밥은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려준 쌀밥은 심한 악취가 풍겼다. (나)의 '옥림'과 '세리'는 상대를 비방하며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가)와 (나)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말하기 태도가 드러나 있는 속담은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이다.

오답 풀이 ①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덕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겉으로 떠벌리고 잘난 체하거나 뽐내지 않는다는 말
② '듣는 것이 보는 것만 못하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
③ '말이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1. 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된다는 말 2.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좋지 못하다는 말
④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 번 되풀이하여 대하게 되면 싫어진다는 말

24 (가)에서 '실험 기간이 4주가 아닌 4년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험 기간이 길어지면 더 뚜렷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로,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가)에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 들은 쌀밥과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은 쌀밥은 4주 후에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말의 힘이 대단함을 깨닫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해 보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것을 다짐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실험 대상이 쌀밥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며 쌀밥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곰팡이가 피는 등의 결과가 나타나므로, 사람도 부정적인 말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25 '옥림'과 '세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해 있는데 이는 '옥림'과 '세리'가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의 실력이 부족하다며 비꼬듯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② '옥림'과 '세리'는 모두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옥림'과 '세리'는 모두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④ '옥림'과 '세리'는 모두 지역 방언이 아닌 표준어로 말하고 있으며, 내용은 상대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있다.
⑤ 상대의 말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